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조 규 철
편집인겸 손 주 영
주간
편집장 차 재 훈
외대신문사 (직통전화 962—7128)
외대학보 (직통전화 965—7048)
131—0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170—4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 규 행

제481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1월 1일 (금요일)

굴종의 들판을 사르는 불멸의 횃불로 살아!

「우리의 분노」
◇판화 : 남궁형 (화가)

철(鐵)의 신념을 새긴다

연두사

기실 여하한 모든것의 끝은 또하나의 시작을 잉태해두고 있다했던가。

파란만장으로서밖에 표현될 길 없는 정묘(丁卯)년 한해는 긴 파문을 뒤로한채 역사의 과거속으로 무심히 침잠해갔고, 무진(戊辰)년을 알리는 힘찬 닭울음이 천지에 울려 새희망을 재촉하고있다。 허나 혹한의 땅, 반도의 남녘 상흔(傷痕)의 육신을 가르는 칼바람 휘몰아치고, 아직은 정녕 아직은 머나먼 봄기운을 희구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

무진년 벽두를 어김없이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못내 가슴을 도려내는 통한의 설움이 미치도록 저려옴을 피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한줌의 권력을 구걸하여, 무고한 양민의 피를 부른 패륜무도한 매국·배족 모리배의 「등극」을 목도함에, 비탄의 27년세월 앓아온 지병의 통(痛)을 숨길 수 없어 오열한다。진실의 장례 전(前)에 백년종속의 한(恨)의 힘을 빌어 곡(哭)하지 않을 길 없음을 고백한다。 포악한 무인통치에 종말을 고해야한다는 필박의 민중들의 절실한 염원은 구래차등(舊來差等)의 망령된 제도구조속에서 음험히 피살되고 말았다。 4천만 국민의 고귀한 피의 댓가인 직선제가 결국 반민(反民) 도당의 치밀히 계산되고 **인력된** 결론을 만들어내기위한 요식행위따위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됨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수호해야할 진실의 힘이 무엇인가를 진정 반문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허나 그 무엇보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숙명적 염원의 파괴로 인해 가중되어가는 전(全)국민적 좌절감이거니와 「폭력의 질서」와 「불의의 안정논리」에 포섭되어 현상황의 본질을 관통할 혜안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엄연한 현실에 기인한다。 하여 우리는, 일컬어 굴곡의 역사는 교훈이니, 역사는 일순 후퇴할 수 있으나 종국(終局) 내재한 그 역동의 힘으로 무한한 발전을 향해 그진보의 등선을 그려갈 뿐이란 만고의 철칙을 뼈에 새겨야 한다는데 강렬한 동의의 뜻을 표한다。 반도의 발원이후 줄기차게 혈맥을 이어온 5천년 민중투쟁의 역사속에 어찌 진(眞)과 정(正)의 함몰을 경험하는 좌초의 절통(節痛)이 없었으랴。 삼천리 방방곡곡 만인의 숨결속에 생동하는 진실만개(滿開)의 세상, 민중주인의 평등·평화의 새사회는 불멸의지의 지반위에 움틀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않기에, 시선을 하늘에 꽂고 억겁(億劫)을 영구히 이어갈 청절(淸節)의 사수를 맹약할 따름이다。 무릇 「실천적 사고」는 발전가능성을 의심하여, 소멸시키고 마는 유약한 단견적 사고를 뜻하지 않는다。 또 주체역량과 객관적 상황은 상호 부합될때 혁명적 발전의 접점을 형성해내긴 하나, 그 우위적 변수는 역량결집의 질적수준에 달려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상황은 역량의 배양과 확장을 통해 전환되어 가는 것, 하여 우리는 만연한 추종의 방임의, 운명의 상황논리와 「평론가적 비난」을 경계해야함은 물론 험난한 상황을 의욕적·주도적으로 돌파, 창출해나갈 집요한 실천의지를 누차 강조해마지 않는다。

압제는 고통을 낳고, 고통은 영속의 투쟁을 낳을 뿐이며, 우리의 의침은 역사의 **유구한** 정당성의 흐름위에 놓여있다。 진실에 대한 충정의 도(道)를 폐(閉)할 수 없는 당위의 이유가 바로 예있음이다。

우리의 운동사(運動史)는 결코 일천한 세월에 축적된 박약한 뿌리를 갖고있지 아니하다。 망국의 패배주의적 기풍에 종지부를 찍고 다가오는 무진년(戊辰年), 우리의 어깨위에 부과된 민족적 대과제를 일구어나갈 철(鐵)의 신념을 가다듬자。 그리고 행동하자。 모든 것의 끝은 분명코 또하나의 준엄한 출발의 명령이라지 않던가。

謹賀新年

새해에도 우성은
신뢰의기업으로서 열심히 연구·노력하겠읍니다.

국민 주거문화 향상과 이상적인 생활환경 창조를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는 「우성건설」
산업보국의 일념으로 30여년 전부터 모방과 타이어
산업에 배전해 온 「우성산업」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관광한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 가는 「우성관광」
소재산업에 참여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온
「우성유통」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적 명성의 미쉐린타이어와
손잡고 출범한 「미쉐린 코리아타이어주식회사」
우성은 건설, 타이어, 모직, 유통, 관광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성장·발전해 가고
있읍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신뢰의 기업으로서
더욱 열심히 연구·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임직원 일동 —

우성건설, 우성산업, 우성관광 우성그룹 우성유통, 미쉐린코리아타이어주식회사

사설

무진년 새해를 맞으며

—유약한 의지에 칼날을 들이대자

한해를 정리한다는 일자체가 벅차다라는 말이 실감이 간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해를 마감하며, 그 표현을 파란과 충격으로 적어 기록하는데 익숙해져 왔다. 그만큼 우리가 발딛고, 피붙이고 살아가는 이땅의 현실은 그저 갑회의 슬픔정도로 흘립되었는, 비통과 울분으로 점철되어온 것이었다. 불평등과 부패의 체제구조는 숱한 사람들의 형용키힘든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만들어왔기에, 우리가 맞는 한해의 정리는 심포절실하기 그지없는 것일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우리가 역사의 한장 (章) 을넘기며, 과거가 남긴 흔적과 과제들을 반성하고 정리하며, 새날의 도래를 위한 다짐으로 삼는 것이 이미 당위적 습성이 되어버린것도 여기에 이유가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익히 공감하듯, 단순한 침통의심정표현은 아름답 화려재생산일 뿐일을 전제하면서, 보다 냉철하고 철두철미한 정리의 필요성을 가슴깊이 절감하는 시점에 섰다.

정묘년 한해는 우리들에게 헤아릴기조차 어려운 숙제들을 남겨 주었다. 전국 전역을 강타하며, 폭였던 한 (恨) 이폭발하듯 표출된 전국민의 투쟁의 결실은 그 열매를 올바로 뒷지못한채 파멸의 나락으로 떨락하고 말았다. 천만번 고개를 도리질쳐 인정하고 싶지않은 사실이 엄연한 현실적 실체로 우리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여기엔 물론 이런 불행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없는 필연적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구시대의 반동적 억압구조가 그렇고, 야권의 적전지탄 (敵前之嘆) 의 분열이 바로 그랬다.

허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물론 패배의 원인에 대한 명료한 규명과 이에따른 실천적 대처가 중요하다는 명제엔 찬동한다. 허나 종착된 객관적 상황을 돌파해나갈 굳건한 주체적 의지를 다지지 못한 상태서, 무의미한 설전과 책임회피적 공론 (空論) 이 좌절감과 냉소주의를 동반하며 현재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더욱 증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기력의굴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실효적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어차피 반동매국세력들의 반민 (反民) 협각은 이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그 칼로를 밟아올 것이다. 직선제에 따른 합법성의 가시적 획득은 커다란 무기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좁혀 집요하고 치밀한 시도의 준비를 요청받는다. 필연적으로 진행될 부정과 비리를 밝히는 폭로공세를 집중적이고 전면적으로 달성해나아가야 하며, 조직의 내구력정립과 보위에 주력해야 할것이다. 또 분열되지않는 힘통같은 단결을 형성해내는 일에서 간과할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이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찬연히 흘러온 우리 운동사의 분위적 의미를 각인하며, 그속에 내재한 부흐의 의기로 부장하는 일은 모든 실천행위의 흔들리지않을 「생명력」이 필것임을 굳게 믿는다. 분부를 삽키며 밟이히는 무진, 패배의 사실자체가 아니라 패배주의에 침면하는 유약한 의지에 칼날을 들이대고, 패배의 거듭남으로 끝내 이룩될 우리의 승리를 위해 조그만 실천을 다짐해보자.

건학이념 결실의 해

◇조규철 총장직무대리 신년사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무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넘치는 만복이 깃들고 공사간에 크나큰 소망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동안 실망과 불안이 거듭되는 학원상황 아래서 힘겹고 답답한 일들에 놀랬 고 민하고, 거센 세파까지 밀어닥치는 가운데서 뜁시도 시달리던 한해였다고 하겠읍니다.

이제 본교는 올해로 개교34년이라는 장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으며, 여러모로 전학의 이념이 유감없이 투현되기를 기대하는 결실의 단계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허다한 난제와 애로가 우리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모두가 한층 합리적 사고의 바탕에서 인적, 재정적 학교경영을 과거의 구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외래가족 모든 구성원을 고루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륜을 모색하고, 세계적인 학문조류에 낙후됨이 없는 교육내용의 충실화에도 박차를 가하여, 온갖 정력과 방법이 거기에 집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학외의 정치적인 기류가 어떠한 파고로 밀려와서 학문의 분위기에 어떻게 파급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태에서 교육이라는 큰 임무를 동에 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내외의 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학문탐구와 학생지도에 이바지하고 대학발전에 동참하는 정신적의지는 우리들의 화목과 단결, 그리고 협동의 미덕에서 더욱 굳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새 총장이 선임되는 날까지, 우리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며, 불초소생이 수행하는 직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년사를 마치겠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민족의 화합 민족대학 세계를

◇이숙경이사장 신년사

무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외대인 여러분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진통과 변혁을 경험했읍니다. 국가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했고 기업체들은 노사분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의 연장선 위에서 우리 외대는 개교이래 최대의 진통을 겪었읍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경속에서 학원수호를 위해 힘써주셨던 외대인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의 학원소요사태로우리 외대는 갈등하기 어려운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겨 주었읍니다.

우리는 다같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치른 값비싼 대가는 학교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외대가 2천년대를 향하여 확실하게 그리고 굳건히 전진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부이양이 있을 것입니다. 경사스럽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학원사태도 결코 평온하리라고 낙관 할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외대인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새해가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와 결의로 모든 시련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30년동안쌓아올린 외대의전통위에 더욱 빛나는 민족외대학 그리고 새세계를 호흡하는평문대학을 건설하도록 다같이노력합시다.

외대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다시한번 빕니다.

선거투쟁이 남긴 몇가지반성과 성과

12월 대통령선거는 결과의 승패를떠나 한반도 사회변혁의 과제를전면적으로 환기시키는 엄청난 계기로 작용할것은 틀림이 없다. 이제 철저한 이론을토대로하지않은 독적의식적 활동일변도에 의존한 무파주의적 정세파악에 기인한 선거국면의 전략전술적오류에 대한 제민주세력의 명쾌한 반성이있어야한다. 「무릇 모든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선거후 성과물로 보이는 모든것들을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정권획득의 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사상·이론투쟁을 게을리하지않아야 할것이다. 본고에서 언급이 미흡한 선거후의 민족민주세력의 실천적과제는 차후 상황이 허락하는 시기 게재할것을 약속드린다. <편집자>

Ⅰ. 평가의 관점

『…확실히 그 힘은 우리가 완전히 존재하는 것, 즉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세겨놓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힘이 무력한 영역도 있다.

우리가 의지를 수행할 수 없더라도, 다만 명목적으로 소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굳세게 갈망했다면 노력의 목표를 명석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 힘이 방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 과연 우리의 약세는 승리를 방해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분쇄하는 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세계의 그 무엇도 우리가 명민(明敏)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시몬느 베이유, 「전망」중에서)

지금 이곳 저곳에서 한숨과 탄식소리, 허탈과 좌절의 몸부림소리가 들려온다. 대통령 선거에 전 모두의 기대와 열망이 컸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좌절과 회의 또한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패배를 딛처 일어나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민주화를 가로 막았던 요인들이 무엇이었고 그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반성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등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오늘을 비판, 반성하고 내일을 전망, 부정하는 역량을 역사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하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와 이에 입각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인 민주화, 구체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의 바램은 공허한 짝사랑에 그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때에 그 평가의 올바른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현상된다.

주지하듯이 모든 운동의 발전이란 연속성과 단절성의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진다. 민주화운동의 발전 역시 반독재, 반종파 투쟁의 연속성과 이를 통한 비민주적 역사의 단절성이라는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운동의 올바른연속성은 또한 운동의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운동은 언제나 올바른 평가의 관점을 가졌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국면에 대한 평가는 승리의 관점에서 지난 선거투쟁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의 단서를 잡아보자.

Ⅱ. 선거 투쟁의 평가

1. 거국내각쟁취 투쟁

거국내각쟁취투쟁은 선거투쟁의 기축 (基軸) 이다. 대중의 내적 일체감과 구체적 목표의 제시, 운동의 명분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국내각구성의 실천적 함의를 깨닫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기, 현실화시키고 운동으로써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적 과제였다.

6·29 항복선언 이후 개헌된 내각 수반인 김정렬이 부정선거의 총지휘자이고 4파전대통령선거의 집행자이며 일관하여 미국과 군부집단에 의해 조정된 자임을 이해한다면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선거국면속에서 거국내각 쟁취투쟁의 실패는 부정선거저지 뿐 아니라 전민중적 대중의 요구, 즉 선거를 통한 군부독재의 종식 및 민선 민간정부로의 이행과 그 내에서의 합법적 운동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민중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보장을 이룩하는 자주적 민주연합 정부수립의 길을 차단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파도내각쟁취투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반성이 남는다. 먼저 현실정치기피, 혹은 공동투쟁의 이해 부족으로 기존 정당세력과 강하게 결합하여 투쟁하지 못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투쟁의 기축을 동요시키게 되었다.

다음으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차원으로 사회속에서 전평되지 못하고 구호차원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 계속적으로 설득해내고 정취해야 한다고는 주장했으나 명분상의 슬로건차원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거국내각에 대한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이나 형식적 제기는 더 이상 대중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했으며 대중의 내면을 변화시켜 낼수 없었다.

2. 공정선거를 위한투쟁

거국내각쟁취투쟁이란 기축이 흔들리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차선의 노력으로 제기된 것이 부정선거저지를 위한 공정선거감시단 구성운동이다. 대다수 민중성으로 존재하는 대중을 자발적으로 역사변혁의 운동에 담당할수 있도록 하는 전 (全) 대중적 차원의 주동적 (主動的) 운동이란 점에서도 이 운동이 갖는 의의는 매우컸다.

실지로 선거란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6월 민주화투쟁 이후 상징적지도부 역할을 해왔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개헌이후 스스로를 「선거감시기구」라는 위상으로 평가절하 시킴으로써 애국민족민주세력의 정치적 진출이나 공범한 대중의 정치적 조직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담당할 때가 사상되어버렸다. 거꾸로 애국민족민주세력의 정치적 진출이나 공범한 대중의 정치적 조직화 없이는 그 선거감시기구로서의자기역할이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따라서 민족민주세력의 지도하에서 대중스스로가 참안해내고 수행하는 정치일정상의 과제가 놓여지게 된 것인데 이 없는 교육내용의 충실화에도 박차를 가하여, 온갖 정력과 방법이 거기에 집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학외의 정치적인 기류가 어떠한 파고로 밀려와서 학문의 분위기에 어떻게 파급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태에서 교육이라는 큰 임무를 동에 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내외의 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학문탐구와 학생지도에 이바지하고 대학발전에 동참하는 정신적의지는 우리들의 화목과 단결, 그리고 협동의 미덕에서 더욱 굳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새 총장이 선임되는 날까지, 우리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며, 불초소생이 수행하는 직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년사를 마치겠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합리적 사고로 많은 난제해결

새해엔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모든시련 이겨야

향후 변혁운동은 반독재투쟁의 연속성과 이를통한 비민주적 역사의 단절성의 상호작용속에서 발전을 꾀해야

그러기에는 역량의 부족과 시간적 한계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이 점이 부정선거저지를 위한 공정선거부정의 첫번째반성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공정선거 감시단의 구성에있어 제기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선거란 체제유지자들의「평화적」체제 재생산 방식이지만 식민지사회에 있어서의 선거는 또 하나의 특질, 즉 상품이 자본의 자기완결성과 확대재생산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봉괴의 맹아를 태내에 가지듯이 선거 역시 그속에 필연적으로 자기파멸의 계기를 갖고 있다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체제유지자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이며 여기에 대중적 차원의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즉 선거에 있어 공정선거감시운동이란 일관된 반군사독재쟁취 쟁의 결의를 전민중적으로 모아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정선거감시단은 서령이나 가두캠페인 따위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닌 군부독재의 원천적부정을 폭로규탄하면서 광범위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3. 민주대통령 후보선택운동

후보문제를 평가하기위한 전제로 우리 모두는 선거가 아타라의 역학관계에 있어 필연적인 효용이었고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모아진다는것을 숙직하게 시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미국—군부독재의 재집권기도가 과거처럼 단순한 정치적 정보공작을 통한 국민분열책이라고 하는 점을 본질로써 인식해야만한다.

선거가 곧 누구를 지지할 인가의 문제라고 할 때 그 지지의 대상은 개인적 인물의 품평을 통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선과 정책이 여하한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즉 누가 더 민주적 대통령후보로 적합한 것과 다름없다. 다시말해 후보단일화 촉구운동은 거국내각쟁취투쟁이나 국민적 부정선거저지투쟁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인식표현 정체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선거의 결과를 패배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패배이후 부정선거폭로투쟁의 명분획득이라는 점에 머욱 중시하는 전술과오를 노정시켰다.

단일화는 결코 비밀협상이나 양김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은 수차 지적된 바 있거니와, 그것을 무원칙하게 양자간의 타협과 중재에 의존하는 실현불가능한 단일화 환상에 젖어 있었다. 실로 주관주의적 오류에 빠진 자가당착적 사고가 아닐수 없다. 결국후보단일화라는 「청원운동」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군부정권이 다시 집권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결정적으로 봉쇄하는 역할로써 이용당한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후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노태우씨가 단일화 운운했던 것과 후보단일화 촉구운동이 선거당일로부터 3일전까지 계속되었던 점을 상기해 보자.

한편 백기완 민중후보 추대운동은 현실 사회가 과거처럼 단순한 구호로 지탱될 수 없으며, 기존의 정치구조가 다원적으로 잠재해 있는 계층간의 이해를 일일이 수용할 수 없는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이러한 긍정성이 존재하는반면 부정적 측면 역시 여전히 남는다.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가 몇번의 T·V유세나 집회장유세에서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할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후보 운동의 결과는 지금까지 보수정치세력이 지배해온 한국의 정치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올것임을 암시하는 전표이면서 동시에 민주세력의 분열을 가져온 것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지니게 된다.

김대중 범국민 단일후보 추대운동에 있어서도 반성의 소지는 있다. 먼저 비판적 지지라는 애매한 표현때문에 가져온 혼선이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는 점들께,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고 머욱 일관성있고 확고부동하게 군부독재와 싸워 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안고서도 범국민 추대운동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합과 통일전선이란 그대상이 원칙에 충실하는 한 유효하다. 이러한 관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선거패배의 책임이 양김씨로 돌아가지 않고 김영삼씨로 향해져야 마땅하다. 민주진영과 지식인들은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관제언론의 세뇌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 들어가는 격이 되고 만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 범국민후보 추대운동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운동적 오류에 있었다기 보다는 앞서 논한 주객관적 상황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주체역량의 한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Ⅲ. 선거투쟁의 의의와 성과

애당초 이번 선거는 6월의 항쟁과 7, 8월의 공범위한 노동자투쟁을 잇는 민주화 대장정이라는 연속성에서 보아왔다.

따라서 지난 선거투쟁의 의의는 6월 이후 기존의 고립분산적으로 산재하던 대중의식이 구체적인 반군부독재 민주정부수립의지로 모아지는 과정에서 찾아져야 한다. 다시 말해 민중적 대중이 군사정권의 술통에 철퇴를 가하는 투쟁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던지며 싸워온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 군부독재의 단절은 가져오지 못했으나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세력이 한국민중과의 결합력을 강화하는데 계기를 획득하는 점으로써의 의의를 갖는다.

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쟁취한만도 민중의 현실참여와 정치진출이라는 가슴 벅찬 함명에 의해 일구어졌으며 그런 의미에서 6월의 항쟁과 7, 8월의 공범위한 노동자투쟁을 잇는 민주화 대장정이라는 연속성에서 보아왔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모든 점에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을 반성과 행동에 할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할당은 어떤규칙에 의해서결정될 수도 없다. 다만 각자의 품성, 성향, 재능, 각자가 장래에 관해 품는 전망, 계기적 상황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 어쩌든 우리들의 최대의 불행은 성공하지도 이해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하고 죽는 일일 것이다』 (시몬느 베이유, 「전망」중에서)

허 민
<서강대 정치외교 학과 강사>

미네르바 한마디

▲무릇 정의로운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단계를 일컬어 「정통성 (正統性) 있다」 라고 한다. 정통성이 민주사회에서 추앙받는 근거는 그것이 가장 정의지향적이고, 상황에 모순될이 없어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할 가능성을 갖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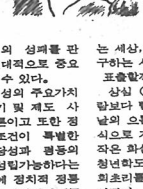
정통성은 대개 사람의 발현중에 유용성 (有用性) 을 요구받기 마련인데 실제로 세계가 다수의 정통성을 갖추하고 있어야할 순순리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작금우리 주변에서 일고있는 정통성 관련문제는 본명 순간적인 영감이나 분위기에서 생겨난 급조물은 아닐 것이다.

정통성의 문제가, 사회집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는 협위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정치본이에서는 결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치적 정통성은 다수백성의 주요가치일반과 정치체계의 이해요지 및 제도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정치주체의 법적, 윤리적 구비조건이 특별한 제층 계급을 초월한 보편타당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을 때 성립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적 정통성은 유형의 물보다는 무형의 신념체계 (信念體系) 에 가깝다고 보아야 옳지 않을까.

▲절국 정통성의 문제는 어떤사물의 등장과 행위가 민 (民) 의 가슴마다에 믿음으로 다가올때만 발휘해진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는 역으로 제도적 폭력이나 강압에의해 정통성을 갖춘것처럼 위장하는 무단의 비정통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오히려 깊어만 간다는 진리를 작금의 실태가 고지 (告知) 하고 있음이다. 칼을 쓰는자가 전장 (戰場) 에 있지 않고 타집단의 고유공간을 지배하여 월포를 일삼음에서는 비정통만을 논하게 될뿐이다.



최근 유형의 물만을, 그것도 막무가내로짜맞추려는 억지가 횡행하고있다. 누군가 한바탕의 부정한 치닥거리로 민 (民) 의 가슴에못을 박고 고혈 (膏血) 의 땔대를 다시 끌었다. 폭군의 비겁은 끊임없이 유형의 물만으로 치장을 하고 민의 신념체계를 범하려 드나 그들에게정통의 빛깔은 어디에도 안보인다.

▲군복입은 비정통이 발광하는 세상, 폐왁긴 민 (民) 의 권리회복을 갈구하는 시대에필요이상의 정통성은 무엇으로 포출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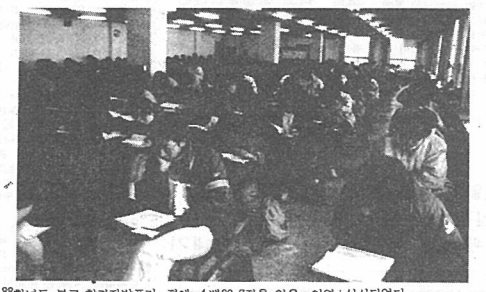
삼심 (蔘心) 에 쓰러진 민초 (民草)는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야 한다. 번들거리는 칼날의 으뜸장에도 빛나는 눈, 살아숨쉬는 의식으로 기어코 불복 (不服) 을 고 (絡) 하는 작은 화살이 필은 어떤가. 민주를 실천하는 청년학도, 순수한 꾸준을 부를뜨고 정의의 희초리를 치켜드는 시대의 양심이 필은 또 어떤가.

<민>.

88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

전체수석은 서양어대 영어과 지원한 이영진양

지난31일 합격자발표, 총3천90명중 여학생 36%차지



◇지난12월22일 (화) 의 합격고사 시험광경

88학년도 본교 합격자발표가 지난 12월31일 (목)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있었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2월2일 (화) 부터 4일 (목) 까지 서울·용인 양캠퍼스에서 실시된다。

선지원 후시험제도의 입시제도 변경에 의해 지난 22일(화) 서울캠퍼스와 석관중·고, 창문여중·고등 각 단대 지정고사장에서 치뤄진 이번 학력고사에서 3천90명 모집정원에 총1만6천2백74명이 지원, 5·27대1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고사당일 2백93명이 결시, 결시율 1.8%를 보였다。이번 입시에 대해 교무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 자세한 합격커트라인및 전체적 우열관계는 모르겠으나 예년보다 다소 하향세를 보인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수석은 서양어대 영어과를 지원, 4백85.7점 만점에 4백30.7점을 얻은 이영진 (수원영복여고 졸업예정) 양이 차지했고 전체합격자 남·녀비율은 여학생이 36%를 차지, 계속적인 여학생증가추세를 보였다。또한 졸업생, 재수생비율은 각각 66.7%, 31.7%로 나타났다。

신입생 신체검사는 1월5일 (화), 6일(수) 서울캠퍼스 각 단대와 아간강좌는 대학원건물 (6105) 에서, 용인캠퍼스 각단대는 교양학관 2층로비에서 실시되었다。

2월2일부터 4일까지 각캠퍼스 별로 실시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기간에는 교내생활지도, 각 부처별 주지사항등 전반적인 대학생활안내, 그밖에 학번배정, 수강신청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기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생처, 용인캠퍼스 학생과로 연락하면 된다。

직원노조, 노동쟁의 신고

학교측과의 3차례 단체교섭 결렬

본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인사, 급여, 산업재해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학교측과 3차에 걸친 교섭을 시도했으나 모두 결렬돼 지난 1월4일 (월) 자로 노동부에 쟁의신고를했다。

직원노조의 집행부는 지난12월5일 (토)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 단체협약으로 학교측과 12월9일 (수) 14일 (월) 23일 (금) 3차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교섭위원선임 미결정, 임시문제로 인한 준비부족, 실무위원회구성결렬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차후로 미룸으로써 사실상 협약은 결렬되었다。

이에 직원노조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신고를 위해 집행부및 단체교섭위원결성차 7명중 5:2로 가결시켜 대의원회에 부의하였으며 대의원 소집에는 총30명중 21명이 참석하여 전원 노동쟁의신고에 동의, 쟁의신고를 하게된 것이다。

서양어대 불어과 오리엔테이션

서양어대 불어과에서는 1월25일 (월) 부터 2월17일(수)까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살펴보면 첫날인 25일부터 31일(일)까지는 선후배상견례, 주제토론, 교수와의 대화, 학회공개세미나등이 진행되며 2월1일 (월) 부터 17일 (수) 까지는 재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과자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게된 배경에 대해 불어과회장 조현민 (불어·2)군은 『여러번의 총파업투쟁을 겪는동안 과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다』며『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주체의식을 심어줘 주변인이 아닌 주인된 모습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실시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경대 무역학과를 비롯한 일부과에서도 자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않은 상태이다。

신입생96.9%등록

전체 94명등록 포기

1월4일 (월)부터 7일(목)까지 있었던 신입생 등록에서 전체합격자 3천90명중 94명이 등록을 하지않아 등록률 96.9%를 나타냈으며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시켰다。

등록을 포기한 학생을 캠퍼스별로보면 서울캠퍼스 31명 용인캠퍼스 63명으로 서울캠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인캠퍼스합격자자의 등록포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선거시위관련 본교생 4명구속

부정선거 규탄시위 "집권위한 선거쿠데타"

12·16대통령부정선거와 관련해 구로구청을 비롯한 교내외에서 부정선거무효와 독재타도를위한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었으며 본교생 4명이 구속되기도했다。

지난12월18일(금)구로구청에서 부정선거규탄결거농성을 벌이던중 연행되었던 박부열(서양·서반아어3·휴학)군과 김희님(서양·불어3)군이 12월21일(월)자로 구속되었다。

또한 12월20일(일) 경원대부정선거규탄대회에 참가했던 이정훈(어문·스와힐리어2) 군과 12월27일(일)명동성당에서있었던 부정선거규탄및 군부독재퇴진결의대회에 참가, 가두시위를 벌이던 김용선(아간·서반아어2)군도 연행, 구속되었다。

한편, 부정선거규탄및 부정집권분쇄를 위한 범외대인실천대회가 12월21일 (월) 오후2시 2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삼민광장에서 있었다。

노광희 (서양·스웨덴어3) 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조승무 (서반아어·4) 서양어대학생회장은 부정선거규탄및 구로항쟁계승 명동부정위원회 명의로 된 성명서를 통해 『광주학살원흉 노태우는 자신의 집권을 위해 선거무데타를 자행했다』고 밝히고 『우리모두 분열과 패배감을 덮고 부정선거무효와 전·노일당퇴진을 위해 싸워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민민학련소속 이수한 (서양·서반아어3)군은 『민중의 힘으로 부정선거에 의한 군사파쇼의 재집권음모를 분쇄하고 민중정당결성과 임시민주정부수립부정으로 총매진하자』고 역설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학살원흉 노태우가 대통령이 웬말이냐』 『부정선거 정권탈취 군부독재 타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30분간 교문앞 연좌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했다。

보직교수 인사이동

본교는 12월21일(월)자로 더아거스편집인겸주간에 신문수(영어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보직교수의 인사이동이있었다。

보직교수이동 내용은 다음과같다。

▲서양어대 서반아어과장 : 강석영교수▲정책과학대 신방과장 : 정진석교수▲서양어문대 영어과장 : 최옥영교수▲서양어문대 노어과장 : 김경욱교수▲서양어문대 루마니아어과장 : 이문수교수▲서양어문대 폴란드어과장 : 정병권교수▲사회과학대 경제학과장 : 김윤형교수▲연수원 교학과장 : 최충희 (일어과) 교수

5개년 발전계획 89년부터

공청회·설문조사통해 학생의견 수렴키로

「외대 장·단기 발전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래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89년까지의 용인캠퍼스 발전5개년계획을 88년까지 이행하고 89년부터 93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워 심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5일 (화) 오전10시 교수협의회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와같이 결정하고 1월말까지 총학생대표와의 공청회, 설문지조사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특별위원회는 『외대의 질적발전도모를 전제로, 현실적으로 수렴이 가능하며 학생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것』이라고 기본입장을 밝혔으며 특별위원회의 연구를 프로젝트화하여 5개년계획수립을 추진한 뒤, 이를 학교측에 제출하기로했다。

89년부터 시행될 이번계획의 수립과정은 기존의 총장1인 중심체제에서 탈피한 단과대학장, 각과 학과장 중심의 협정체제가 접토되며 「교통문제·교육개선 특별위원회」의 계획안을 수렴하여 문서화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캠퍼스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협의회의 약속중 88년3월까지의 계획은 1월중순현재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중이라고 교수협의회는 밝혔다。

「장·단기 발전계획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인 박종덕 건설본부장은 『여학생휴게실과 승차장 바람막이 공사가 이미 완공됐으며 휴게실 가전품은 1월말까지 완공될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어문대4층 일부의 열람실화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부분적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종익 재무처장은 『재단이 약속한 장학금증액이 88년1학기부터 실시되도록 노력중』이라고 설명하고, 서점과 식당의 직영화를 위해 총무처에 복지과를 신설하여 교수, 직원, 학생간의 협의회구성안을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1회 본보 총동우회개최

제1회 외대학보 총동우회가 12월9일(수)오후7시 뉴월드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의 동우들과 전·현직 주간교수들이 참가해 학보의 제반문제와 지원에대한토의등이진행되었다。

동양어대 부당탈락 60명 구제

나머지 19명, 졸업자격고사 응시해야 졸업가능

졸업예정자 부당탈락문제로 졸업시험을 거부하는등 학교·학생측간에 마찰을 일으켰던 동양어대 부당탈락자문제가 79명의 탈락자중 중국어과, 일본어과, 아랍어과탈락자 60명이 구제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는 학교측에서 문교부와 접촉, 81년 당시 아간강좌개설 학과인 중국어과등 3개과에 대해서 입학정원인 52명보다 26명을 더 뽑는등의 학교측 협정착오를 시인하며 문제의 해결을 요구, 문교부에서 이를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동양어대 졸업예정자들은 각과별로 연기했던 졸업고사를 실시했으며 중국어과 일본어과, 아랍어과를 제외한 졸업정원에 의해 탈락하는 마인어과등 나머지학과 졸업예정자 19명은 2월초에 실시되는 졸업자격고사에 응시, 합격해야 졸업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양 캠퍼스 우편번호 변경

서울·용인캠퍼스 우편번호가 오는 2월1일 (월) 부터 각각 131—791, 449—850으로 변경 된다。

이번에 우편번호가 바뀌게된 것은 체신국이 우편업무의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대문구의 경우 동대문구와 중랑구로 분구 (分區) 되는데 서울캠퍼스의 변동사항은 없다。

외대문학상 시상식 거행

본보제정, 제25회 외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2월17일 (목) 오후3시 총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총장직무대행 조규철교무처장, 손주영 본보주간교수와 본보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각부문별 수상자와 수상작품은 다음과같다。▲시부문 당선작 : 김형진 (동양·태국어3) 「판화작업·셋」▲소설부문 가작 : 임수경(서양어문·불어2) 「월어버린 영혼」▲평론부문 가작 : 전용갑 (서양·서반아어3) 「도시빈민 소설에 나타난 소외와 극복의 양상」

고 침

본보 480호 (12월15일자) 신문에서 학회연합회장 박종훈 (어문·스와힐리어3) 군의 구속이 총학생회 기획부장 구본엽 (어문·영어3) 군으로 오보되었기에 바로 고침니다。

외 대 학 보

보직교수 인사이동

본교는 12월21일(월)자로 더아거스편집인겸주간에 신문수(영어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보직교수의 인사이동이있었다。

보직교수이동 내용은 다음과같다。

▲서양어대 서반아어과장 : 강석영교수▲정책과학대 신방과장 : 정진석교수▲서양어문대 영어과장 : 최옥영교수▲서양어문대 노어과장 : 김경욱교수▲서양어문대 루마니아어과장 : 이문수교수▲서양어문대 폴란드어과장 : 정병권교수▲사회과학대 경제학과장 : 김윤형교수▲연수원 교학과장 : 최충희 (일어과) 교수

서울, 학생회관 4층 3월초입주

용인, 2월28일 완공식 예정

학생회관4층 화재사건으로 입시를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던 써클룸문제가 2월말경 내부공사가 끝날예정으로 있어 개학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공사는 기존의 써클룸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중이며 학생회관 전체의 유리창셔터를 교환하는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덕 건설부장은 학생회관 복구사업에 대해 『종전의 써클룸이 합판으로 칸막이를 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번 공사에서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21일(월)시작된 공사는 2월말까지 내부공사가 끝나 개학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며 외부마감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또한 86년 10월 착공식을 가진 용인캠퍼스 학생회관은 페인트칠등 내부공사만 남겨놓은채 95%의 공정을 마쳐 오는2월28일 완공식을 가질예정이며 개강과 동시에 각써클은 학생회관으로 입주할수 있게된다。

방학중 단축업무 2월20일까지

겨울방학동안 교내 각행정·복지기관은 1월4일 (월) 부터 2월20일 (토) 까지 단축근무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 교무처와 용인캠퍼스 학생과등 교내 각행정부서와 도서관의 도서출납및 참고실, 정간실등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열람실이용은 종전과같이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이용할수 있게 된다。

학내 복지시설인 구내다방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은 각각 오전9시부터 오후3시, 2시까지, 구내서점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단축 운영하며 토·일요일은 휴무한다。한편 우체국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평상시대로 영업하며 환금업무만 오후4시까지 1시간 단축업무를 하게된다。

통계 및 데이타 분석법 특강

본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는 1월18일 (월) 부터 1월29일 (금) 까지 대학원 1층전자계산소에서 제3회 사회통계및 데이타분석법특강을 갖는다。

이번 특강은 김홍규(신방과)교수와 최현철(계명대 신방과)교수가 맡게되며 기초반은 1월18일 (월) 부터 22일 (금) 까지 고급반은 1월25일 (월) 부터 29일 (금)까지 진행된다。

참신한(?)시나리오

▲자고로 권위주의정권이피상적이나마민주주의에토의회귀가능성을염(占)친다는것은 예삿일이 아닌 듯하다。그렇다고 할때, 구랍 3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피력한 노태우대통령당선자의 「민주화향추진위 중심의 권위주의 형태 청산」 운운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독재진영 중식의 신앙이 반동지배체제의 파상적(波狀的)인 공세에 뭉개진, 그리하여 입에 올리기조차 추졸(醜拙)한 신식민지지배블럭의 합법적 재집권이 코앞에 바싹 다가선 작금, 현정권의 이러한 입맛의 추이는 참신한(?)시나리오의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앞다시피 여압에 근거한 현정권의 뒤안길에는 긴장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머문다나 체제의 존립근거가 민중부분과 그 연합세력들에 대한 폭압적 통제와 철저한 「배제」에 있음으로 해서 설립기반의 성격상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할 지경에 있는 것이다。사회안정이나 경제발전 그리고 단순한 정치적 상징조작 같은 미약하면서,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지지수단 정도로는 정당성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정당성」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한다。

정당성의 매개체가 없으면 그들이 계속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기에 그러하다。그러나 그 매개체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넘어서는 안될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을까」하는 원시적인 공포가그들을주저케한다。바꿔말하면 정당성을 이룩할 수 있는 희망의 촛점인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민중, 「배제의 성벽」에 분노한 민중과의 적대적 모순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거대한 권력의 요체임을 스스로 표방하고 나선 현체제는 결국 결집된 정당성의 매개체를 어떻게 대치하느냐의 난간에서 근육스러워한다。

▲근자 노(盧) 의 발언도 그들의 고충을 십분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다。「초당적국정운영」 도 그렇고 「노태우정권」 에 대한 「국민재신임」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단순한 정통성 차원만이 아님을 반추해야 한다。애초 자기성격을 포기하지 않는한 권위주주의 정권에서의 정통성획득이란 한낱 몽상에불과하며 그것을 아는 그들이라면 막연한 정당성에 대한 향수(鄕愁)보다는 아예철저한 반동의 길을 택할거란말이다。

「개량의 박테리아」, 「양보점 허위의식」 그를 통한 「민주진영의 자생적 분열」, 「보수대연합구축과 현상유지」 얼마나 참신(?)한가。

호시탐도 그들의 운합합제스처에 평한 환상을 보았다면 이젠 호트러진대오를 바로 잡을 차례다。

갈길이 멀다。<김 훈>

"1988年은 韓國生産性本部 創立31周年이 되는 해"

韓國生産性本部

第24回 貿易의 날 大統領 團體表彰 受賞

1987年 技術指導 優秀賞 受賞

韓國生産性本部가 "第24回 貿易의 날"에 大統領 團體表彰을 受賞한 것은 많은 輸出關聯企業의 生産性向上에 寄與한 功을 認定받았기 때문입니다.

韓國生産性本部가 "1987年 技術指導 優秀事例發表會"(工業振興廳 主管)에서 優秀賞을 受賞한 것은 많은 工場에 대한 技術指導 및 教育이 다른 어느 機關보다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韓國生産性本部가 갖추고 있는 工場自動化·事務自動化 教育施設, 教授陣, 教材, 그리고 診斷·指導要員은 이제 他機關의 追從을 不許하는 確固한 水準에 달했음을 公認받았읍니다.

企業의 經營成果를 높이기를 願하시면 韓國生産性本部가 이를 즉시 도와드리겠읍니다.

主要業務

- 工場自動化·事務自動化
- 技術指導 및 教育訓練
- 産業시스템 엔지니어링
- 産業技術向上資金支援
- 經營情報시스템 診斷·指導
- 經營診斷·指導 및 教育訓練
- 企業相談
- 調査·硏究
- 國際協力
- 會員奉仕
- 出版·視聽覺教材開發·普及
- OA·FA機器常設展示場運營

kpc 韓國生産性本部

785-5868·555-5868, C.P.O.BOX 834

◇전(前)시기 통전운용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며

통일전선 운용의 원칙과 방법

김 영 원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기획번역가

Ⅰ. 머리말

격동의 대회전은 끝나고 승자와 패자(?)는 명백해졌다. 자연의 법칙은 어김없이 관철되어 우리의 육체를 차갑게 몰아쳐 그 패배감을 더하지만, 우리는 또한 사회법칙의 필연성을 말하기에, 또한 그 법칙성은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실천행위를 통해서만 관철되는 것임을 알기에 결코 움추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 속에서만, 그것을 통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파악,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전망,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실천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글에서는 지난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통일전선 운용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통일전선 운용의 원칙과 방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기서 언급해 둘 것은 과거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전체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운동의 매 분야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있어서의 여러 입장중 자신이 견지했던 입장을 고집하여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투쟁해와 관련해 볼 때, 자기 입장의 고집스러운 고수는, 『그것 보아라—우리가 제일 앙심적이었지』 『우리가 제일 실속을 차렸지—바보들아』 『역시 민족의 지도자다—부정선거싸움에 제일 앞장서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평가밖에는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아무런 이득을 가져올 수 없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민족민주운동 전체의 관점에 서서—이것의 결여가 이전 시기 실패의 큰 원인중 하나이기도하다—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Ⅱ. 중심글

1. 통일전선의 목적

이것은 우리가 왜 통일전선을 운위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통일전선을 운용하는 원칙과 방법은 바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도이므로 이것을 정확히 규정해야 통일전선 운용의 원칙과 방법 또한 바르게 설정할수 있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정할수 있다.

①점으로부터 주체역량의 보호

②당면 전술적 목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통해 전술적 목표의 달성, 그리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의 확보

③광범위한 대중의 전취

이 3가지 목적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것은 아니지만 첫째 항목은 주로 「전술적 수세기」에 강조된다. 즉 강대한 적의 폭압에 대한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주체역량 (주력+보조역량) 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한 「전술적 공세기」에 강조되는 측표로서 정세의 변동에 따라—즉 대중의 일정한 진출, 그리고 적의 일보후퇴—전술적 목표 달성에 이해관계를 갖는 계급·정파·단체와 전술적인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세째는 통일전선을 운용하는 근본목적으로서 통일전선운동에 광범위한 대중을 참여시켜, 적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그 투쟁과정에서 통일전선 대상의 한계를 알게하며 강령적 요구의 선전선동속에서 탈권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통일전선 상대의 한계를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투쟁속으로 진출시킴으로써 동요하는 통일전선 상대의 한계를 알게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어떠한 시기를 막론하고 강조된다.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통일전선의 문제에서는 일차적으로 전략적 통일전선을 기초로 해서 전술적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역량과 함께 전술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중간층 (개량주의자, 자유주의자) 은 전술적 목표의 달성에서 조차 철저하지 못하며, 전략적 통일전선이 굳건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투쟁의 성과가 주체역량의 편이 아니라 중간층에게귀속되는것이상메이기때문이다.

머구나 주체역량이 일정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론적 당면 시기에대한 전술적 방침이 다를 때는 중간층을 전인하는 대신오히려 그들에게 전인되어 각개격파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분열은 상대의 의도와 부합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러한 원칙적 주장은 언제나 전략적 통일전선을 먼저 결성하고, 그 이후에 전술적 통일전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술적 통일전선을 먼저 형성함으로써, 전략적 통일전선의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적을 고립시켜야 할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중의 진출정도, 상대 내부의 분열과 내부관계, 중간층의 정치적 동향 등에 의존하고, 그 사상적 뿌리의 불전전함, 주체범위의 왜소함 (노동계급 이기주의), 당면 시기의 전술적 연합전선의 소홀로 말미암아 1986년 5·3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자체 와해의 길을 걸고 말았다.

이후 이것에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새로운 사상과 민족해방운동론에 입각한 조류가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그 특유의 「민족자본가=동혁론」에 입각하여 「반미구국 통일전선론」을 들고나왔다. 그리하여 이들은 통일전선 문제에 있어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통일전선을 구별하지 않은채, 정세의 요구에따라 중간층 주도하의 민주연합전선을구축하였으며, (여기까지는 그래도 옳다)이 민주연합전선을 반미구국 통일전선으로 성장, 발전시킨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간층이 투쟁과정에서 개량적 태도를 취하고 투쟁의발전을 억압할때도 이들은 대동단결을 소리높여 외치면서 오히려 전략적 통일전선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앞의 입장이 좌경적 오류를 범했다면 이들의 오류는 우경적 오류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기의 전술적 목표=군정종식→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당시 전선의 성격 (신식민지 지배블럭—민주세력) 을 올바르게 반영한 목표였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연합전선=전술적 통일전선만이 필요하고, 민중연합전선=전략적 통일전선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필수없으며, 그러한 시도가 분파주의로서 대동단결을 해치는 작태로서비난받아야할이유도없다.

6월 투쟁의 막바지에서 군부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진출하였던 대중들이 직선제라는 부분적 승리를 쟁취한데 만족해한 것도, 그리하여 선거혁명의 환상을 가지고 선거부정을 묵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에는 커다란 두가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싶다. 첫째는 선거혁명론적인 관점으로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이미 드러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의 음모를 제대로 보지못한 사고이고 순순히 권좌에서 물러난 독재자는 하나도 없다는 만고의 교훈을 망각한 사고의 소치라 할수 있다. 우리는 선거과정을 상대의 음모와 본질이 폭로되고 그리하여 대중의 진출이 좀더 심화·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야 했지 그것을 승리의 담보물로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둘째로, 기본적으로 단일화 여부가 우리의 호소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부르조아 정객들의 권력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고한 것이었고 우리가 그들의 양심과 애국심에 아무리 호소한들 그것은 이루어 질 수없는 일이었다. 주관적 희망을 객관적 현실에 대치시키는 것은 주관주의적 오류인 것이다.

결국 당시의 중심고리적 투쟁형태가 단일화투쟁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상대의 부정선거음모, 민주세력내의 분열을 예상할때 중심고리적 투쟁형태는 전·노뇌진투쟁, 부정선거 저지투쟁이었다. 이것은 그러한 투쟁이 민주당, 평민당, 비판적지지, 독자후보 같리자 있는 민주연합전선내각 세력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치였고, 또한 전략적 통일전선 내의 세력이 자신의 통합성을 증대시켜 갈수 있는 통로였으며, 또한 이 투쟁이 상대가 재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음모를 분쇄하고, 여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폭로를 통해 대중의 정치역량화를 꾀함으로써 선거이후 하층통일전선과 상층통일전선을 배합하는 방법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리할수 있다. 가령 상층통일전선을 먼저 실현하여 하층에 영향을 줄수도 있고, 반대로 하층통일전선을 먼저 실현하여 대중의 힘에 의해 상층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할수도 있는 것이다.

전(前) 시기에 있어서는 6월투쟁을 일층강화하고 하층통일전선을 실현해나갈 시기였다. 머구나 6월투쟁의 막바지에 상층이 동요하고 6·29 이후 선거혁명론적 관점을 유포할 때, 6월투쟁을 다시 있고 반군부독재투쟁을 힘차게 벌여 상층에 다시 영향을 주어야 할 시기였다.

이것은 단일화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욕으로 가득찬 그들에게 양심을 불러 일으키고 예타게 호소한다고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직 대중의 힘으로써만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였던 것이다.

5. 통일전선 내에서 단결과 투쟁의 올바른 결합

통일전선에 말라되는 여러 계급·계층·정파·단체는 변혁을 지향하는 긍정적 측면과 상대와 타협하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지지하여 단결하는 동시에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투쟁해야 통일전선을 전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만일 단결과 투쟁을 올바르게 결합시키지 않고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오류이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투쟁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단결이 약화되고 통일전선이 결렬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원칙한 단결만을 내세우고 투쟁을 포기하게 되면 통일전선은 무력한 존재로 되어버린다.

부정적 측면은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 긍정적 측면은 적극 지지하여 조성시킴으로써 통일전선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일찌감치 이러한 원칙을 내던진 소위 비판적 지지론은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성과 권리 대중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오류였다.

그들이 설정한 양김의 차별성은 아무리 크게 설정해도 그들과 우리의 차별성보다는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려하기는 해야 하나 그것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만 의미있는 것으로 필 수 있다.

결국 비판적 지지론은 투기적 무목적성, 독자성의 상실, 견인당함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Ⅲ. 맺음말

우리는 위에서 통일전선 운용의 원칙과 방법 몇가지에 비추어 지난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전선 운용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없이는 투쟁의 성과를 끝까지 지킬수 없으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투쟁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았다.

다시말해서 전략적 통일전선의 형성과 그에 의한 통일적인 지도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상대의 음모와술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거쿠데타를 통한 군사독재의 재집권이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도 민족민주세력이 전·노뇌진투쟁, 반노투쟁, 부정선거저지투쟁을 효과적으로 벌이지 못한데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시기에 누가 더 잘했나 하는 것을 파시하고 상대방을 비난할때가 아니라, 낮은 차원의 공동투쟁과 사상투쟁을 통시에 벌어면서 민족민주세력 내의 통합성을 높여나가고 그 기초위에서 그리고 그 힘으로 중간층을 견인하여 민주연합전선을 더욱 더 강고히 해야 할때라 보여진다.

하층통일전선을 튼튼히 하지않으면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어렵고 실현되는 경우에도 상층의 동요를 막아내기 힘들다.

우리는 선거과정을 상대의 음모와 본질이 폭로되고, 대중의 진출이 좀더심화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야 했지 그것을 승리의 담보물로 착각해서는 안되는것이었다.

전술적통전 민주연합전선, 전략적통전 민중연합전선

통일전선 형성의 목적은 운동의 대중화 실현에 있어

반노·부정선거투쟁으로 운동세력통합을 증대시켜 선거후 정치정세에 대비했어야

2. 전략적 통일전선을중심으로 전술적통일전선을

우선 몇가지 개념규정을 해보기로 하자.

전략적 통일전선(민중연합전선) 이란, 전략적 목표의 달성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諸) 계급·계층·정파·단체를 꾸리는 작업으로서 보통 주체역량 (주력+보조역량) 내부를 꾸리는 문제이고, 전술적 통일전선 (민주연합전선) 이란 당해 시기의 전술적 목표에 있어 공통성을 갖는 계급·계층·정파·단체와의 공동행동·공동투쟁의 문제이다.

해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전략적 통일전선을 중심으로, 그것을 튼튼히 세워나가고, 성장 강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정세의 요구에 따라, 전술적 통일전선을 고려해야 하며 전술적 통일전선 문제가 현시기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고 해서 전략적 통일전선 문제를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살펴보자.

1985년~86년 말까지 민족민주운동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입장에서는 「선주체 후연대론」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일면적으로는 올바른 사고를 가졌음에도 정 과정에서 대중이 양김씨식(式)의 군부독재투쟁 밖에 진출할 수 없었던 것도 민족민주운동 내의 각세력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할수 밖에없었던 것도, 그리하여 양김에게 견인당하고 그들과 함께 패배를 맛보았던 것도, 또한 이후 부정선거투쟁의 지리멸렬함도 모두 전략적 통일전선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 낮은형태의 공동투쟁에서 높은형태의 공동투쟁에로

통일전선에 포용되는 각 계급·계층·정파·단체는 그 계급적 위치·세계관·정세관·의식수준이 모두 다르고, 투쟁에 대한 열의도 다르다. 따라서 한 계급·계층·정당·단체가 아무리 투쟁의지가 높다고 해도 다른 계급·계층·정파·단체를 투쟁에 견인하고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합의할 수 있는 낮은 형태의 투쟁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점점 더 각성시키고 진출시켜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낮은 형태의 투쟁을 설정하는 문제일 뿐아니라 통일전선 운용의 중심고리적 투쟁형태를 확인하는 문제로 된다.

6월투쟁 이후의 시기에 있어 이러한 중심고리적 투쟁형태는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일화투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것에는 커다란 두가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싶다. 첫째는 선거혁명론적인 관점으로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이미 드러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의 음모를 제대로 보지못한 사고이고 순순히 권좌에서 물러난 독재자는 하나도 없다는 만고의 교훈을 망각한 사고의 소치라 할수 있다. 우리는 선거과정을 상대의 음모와 본질이 폭로되고 그리하여 대중의 진출이 좀더 심화·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야 했지 그것을 승리의 담보물로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둘째로, 기본적으로 단일화 여부가 우리의 호소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부르조아 정객들의 권력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고한 것이었고 우리가 그들의 양심과 애국심에 아무리 호소한들 그것은 이루어 질 수없는 일이었다. 주관적 희망을 객관적 현실에 대치시키는 것은 주관주의적 오류인 것이다.

결국 당시의 중심고리적 투쟁형태가 단일화투쟁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상대의 부정선거음모, 민주세력내의 분열을 예상할때 중심고리적 투쟁형태는 전·노뇌진투쟁, 부정선거 저지투쟁이었다. 이것은 그러한 투쟁이 민주당, 평민당, 비판적지지, 독자후보 같리자 있는 민주연합전선내각 세력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치였고, 또한 전략적 통일전선 내의 세력이 자신의 통합성을 증대시켜 갈수 있는 통로였으며, 또한 이 투쟁이 상대가 재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음모를 분쇄하고, 여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폭로를 통해 대중의 정치역량화를 꾀함으로써 선거이후 하층통일전선과 상층통일전선을 배합하는 방법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리할수 있다. 가령 상층통일전선을 먼저 실현하여 하층에 영향을 줄수도 있고, 반대로 하층통일전선을 먼저 실현하여 대중의 힘에 의해 상층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할수도 있는 것이다.

전(前) 시기에 있어서는 6월투쟁을 일층강화하고 하층통일전선을 실현해나갈 시기였다. 머구나 6월투쟁의 막바지에 상층이 동요하고 6·29 이후 선거혁명론적 관점을 유포할 때, 6월투쟁을 다시 있고 반군부독재투쟁을 힘차게 벌여 상층에 다시 영향을 주어야 할 시기였다.

이것은 단일화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욕으로 가득찬 그들에게 양심을 불러 일으키고 예타게 호소한다고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직 대중의 힘으로써만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였던 것이다.

5. 통일전선 내에서 단결과 투쟁의 올바른 결합

통일전선에 말라되는 여러 계급·계층·정파·단체는 변혁을 지향하는 긍정적 측면과 상대와 타협하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지지하여 단결하는 동시에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투쟁해야 통일전선을 전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만일 단결과 투쟁을 올바르게 결합시키지 않고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오류이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투쟁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단결이 약화되고 통일전선이 결렬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원칙한 단결만을 내세우고 투쟁을 포기하게 되면 통일전선은 무력한 존재로 되어버린다.

부정적 측면은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 긍정적 측면은 적극 지지하여 조성시킴으로써 통일전선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일찌감치 이러한 원칙을 내던진 소위 비판적 지지론은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성과 권리 대중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오류였다.

그들이 설정한 양김의 차별성은 아무리 크게 설정해도 그들과 우리의 차별성보다는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려하기는 해야 하나 그것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만 의미있는 것으로 필 수 있다.

결국 비판적 지지론은 투기적 무목적성, 독자성의 상실, 견인당함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Ⅲ. 맺음말

우리는 위에서 통일전선 운용의 원칙과 방법 몇가지에 비추어 지난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전선 운용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없이는 투쟁의 성과를 끝까지 지킬수 없으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투쟁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았다.

다시말해서 전략적 통일전선의 형성과 그에 의한 통일적인 지도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상대의 음모와술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거쿠데타를 통한 군사독재의 재집권이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도 민족민주세력이 전·노뇌진투쟁, 반노투쟁, 부정선거저지투쟁을 효과적으로 벌이지 못한데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시기에 누가 더 잘했나 하는 것을 파시하고 상대방을 비난할때가 아니라, 낮은 차원의 공동투쟁과 사상투쟁을 통시에 벌어면서 민족민주세력 내의 통합성을 높여나가고 그 기초위에서 그리고 그 힘으로 중간층을 견인하여 민주연합전선을 더욱 더 강고히 해야 할때라 보여진다.

알 림

본보에서 기획중인「변혁운동과 한국의 국가」시리즈는 개강호 (482호)에「변혁운동과 국가의국체」(9) 이 실릴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바랍니다.

<편집자>

"산상수훈을 통한 언어정복 코·스"
(복음송)

「산상수훈 111귀절(마태복음 5,6,7장)을 복음송(Gospel Song)에 맞춰 노래하며 암기함으로써 당신도 단 3개월이면 3개국어(영어·일어·중국어) 회화를 정복할 수 있읍니다.!」

● 교육목표 — 1차/회화(고급) 정복
2차/해외유학 TOEFL 도전 실력향상
3차/해외유학 선교사 파송
● 교육기간 — 3개월
● 교육회비 — 없음. (선교회측 부담)
● 교육혜택 — 소정기간 이수후, 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해외 유학 장학금 지불.
● 모집기간 — 1988년 1월 8일~2월15일
● 모집절차 —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선착순 마감)
● 연락·문의처 — 노량진 전철하차, 일미일 극장옆 성산빌딩 〈전화〉816-2822·28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너언어선교회 I and THOU LANGUAGE FELLOWSHIP

당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 日本語를 배우십시오!!

일본어는 일반공학분야, 전산, 컴퓨터, 광고, 패션등의 일부 전문직종에서만 필수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일본어는 몇개의 분야만 제외한 사회전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현실적인 「자자가치가 매우 높은 언어」입니다.

「일본어」는 전문학원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배울수 있읍니다. 「時事日本語学院」은 「일본어 전문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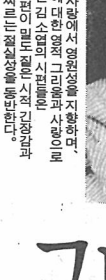
기초에서 고급 독해까지
● 정통문법코스
● 日本人회화코스
● Free-talking
● 유학취직 시험대비종합반
● 유학, 學試일본어
● 고급독해, L/C집중코스

日本유학 특별종합코스

강의 및 위치안내 735-3939, 2636
종로2가 서울예식장에서 조계사쪽으로 30 m

일본어 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킨 時事日本語学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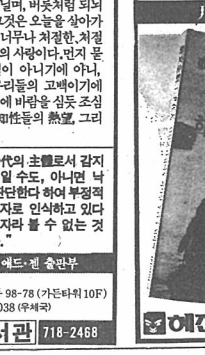
金小葉 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님을 그리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學,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한 사랑의 갈구



〈영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육의 남편이신 말씀 고상영 예수님께 첫 열매를 바칩니다.〉
동양의 서정을 유려한 가락, 깊고 그윽한 향해 띄우는 김소엽 시인의 사랑 현시.
초월한 사랑에서 영원성을 지향하며, 승화시킨 김소엽의 시편들은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는 절실성을 동반한다.
한편 한편이 애모 절절한 시적 진술과

그대는 별로 뜨고
文學世界社 (764)2672, 2,000원

전국 대학신문 주간교수 70人의 컬럼
휘청거리는 時代의 뜰을 거닐며
尹在天 編
휘청거리는 時代의 뜰을 거닐며, 비웃처럼 되뇌여지는 무수한 날말들—.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이들의 가슴앓이다. 너무나 처절한.처절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다. 먼지 묻은 경구가 아니고, 빈정거림이 아니기에 아니, 그렇게 씻어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기에 돌에 이름을 새기듯, 모래위에 바람을 심듯 조심스럽게 써 내려간 이 時代 知性들의 熱望, 그리고 간절한 기도.
"韓國人으로서 그리고 한 時代의 主體로서 감지하는 오늘의 현실은 절망적일 수도, 아니면 낙관적일 수도 있다. 전자로 판단한다 하여 부정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고, 후자로 인식하고 있다 하여 긍정적인 사고의 소지자라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학의 구입신청은 (주)애드·펜 출판부
□전 화 : (02)741-1661/2
□주 소 :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0F)
□대체구좌 : 010579-31-1272038 (무체국)
혜진서관 718-2468

우리時代를 위한 散文企劃 1
尹在天隨筆集
혜진서관
나뉘고 나뉘어도 한나면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의 내면에 서린 끈끈한 정을 발굴, 인간이기를, 오직 인간이기를 추구하는 산문시인 윤재천 교수의 수필로 쓴 체험론
尹在天 隨筆集


혜진서관

軍·행정병 모집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자격 — 각군 17~28세 고졸이상 해군중위이상, 육군중위이상, 공군전월월 거쳐입대 (요원해에 발령)
특전 — 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전월월 거쳐입대 (요원해에 발령)
(육학조정가능)
차트·돈 글 씨 펜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수료후 자격증 취득 가능〉
〈각종 조직체 기관 및 개인지도로 지도 가능〉
〈수료후 전원 자격증 소지자 우수자 계속 유용〉
732-5346
735-3771

기동취재

우리는 결코 굴복할수 없읍니다

—구로구청 투표함 조작과 밀반출 기도사건을 보며

Ⅰ. 들어가는 말

80년5월의 피묻은 군복과군화를 연미복과 신사화로 바꾸고, 피묻은 손에 흰장갑을 끼고는 여전히 총칼을 깊숙히 간직한채 「위대한 보통사람」으로 나선 노태우씨는 이번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연일 제도언론은 이번선거의 결과를 「야당후보 단일화실패」로 보도하였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새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해주려고 온갖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묵과할수 없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부정선거증의 하나에 불과한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조작및 밀반출기도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시키고 살인적 폭력진압에 대한 증거들을 훼저히 인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이다.

주권을 조작해내고 주권을 부르짖는 민주적 투쟁을 물리적 폭력으로 진압한 구로구청 사건은「12·16부정선거」의 단면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제5공화국」그리고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결과로 나타난 차기정권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Ⅱ. 도둑질당한 국민주권

12월18일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함을 사수함으로써 끝까지 국민의 귀중한 한표를 지키려한 2천여 시민·학생들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 깡패경찰·백골단들에의해 농성이틀만에 잔인하게 진압당하여 1천32명(남845, 여189) 이 연행되었다.

문제의 부정투표함이 적발된 당시의 상황은, 투표당일인 지난12월16일 오전 11시2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투표소에서 『부정투표함이 구청현관 앞에서 반출되고있다』는 어느아주머니의 제보에 따라 2·5톤 피업트럭(서울7다 7870) 안의 빵, 사과더미 속에 숨겨싣고가려던 부정투표함(?)이 선거감시단원들과 시민들에게 적발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때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평민당원 박영환씨가 투표함을 호송하려던 무장경찰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변하여 『보아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트럭안을 들여다보고 빵, 과자등이 있어 무심코지나치려할때 한 아주머니의 시종에는 구로구청 별관3층 선관위사무실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할 때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전당대리인 도장일체와 봇투껍 64개, 인주74개, 투표용지1,506매, 인주 묻은 손걸갑, 봉인이 뜯겨진 투표함 1개가 발견되었다.

이날오후 4시경 공정선거감시단, 평민당, 민주당, 구로을구 선관위원장 심일동씨등이 외신기자들만 모인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고, 시민들은 농성지도부를 구성하고 규합대를 편성, 농성장주변 경계를 시작했다.

속지않는 진압경찰들과 구로구청에서 빼돌리려 했던 부정선거 증거물들

구로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중성, 폭력성으로 무장된 부정선거 음모의 대표적 사건

『투표용지 봐』하는 소리와함께 문제의 투표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박씨가『투표함이다!』라고 고함을 치자 시민들이 몰려오고 경찰들은 그때로 달아났으며 이미 그이전에 두대의 트럭이 투표함을 싣고 나갔음이 처음 제보를 한 주부의 증언으로 밝혀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인간사슬을 형성해 즉자 트럭및 부정투표함을 사수하기 시작했고,이와함께 이날 낮12시경에는 구로구청 별관3층 선관위사무실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할 때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전당대리인 도장일체와 봇투껍 64개, 인주74개, 투표용지1,506매, 인주 묻은 손걸갑, 봉인이 뜯겨진 투표함 1개가 발견되었다.

이날오후 4시경 공정선거감시단, 평민당, 민주당, 구로을구 선관위원장 심일동씨등이 외신기자들만 모인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고, 시민들은 농성지도부를 구성하고 규합대를 편성, 농성장주변 경계를 시작했다.

12월17일 노태우의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8시, 시민 약 6천여명이 운집한 상태에서 「선거무효화를 위한 서울지역 투쟁위원회」를 발족,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이 부정투표함을 사수하는 이유는 이 투표함의 투표를 쟁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전면적인 투효를 선언하고자 함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를 꽃은 국민의 열망을 짓밟려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구로구청의 함성은 18일새벽 6시30분경 「폭도의 난동」으로 매도되어 경찰들에 의해 진압되었다.

살려주세요…

18일 6시30분경 4천8백여명의 전경들이 구청앞 사거리에 운집한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 구청입구에 3중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들의 출입을 완전봉쇄, 이어 전경들은 구청내부로 지랑탄을 난사하여시민들을 구청안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지하실과 각층별로 급히 피신하였다.

7시20여분까지 전경과 군화를 신은 백골단(보통 백골단은 운동화를 착용함) 들이 순식간에 1층에서 5층까지 완전히 진압을하고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상황은 최근 들어 농성참가자중 혼방된사람과 부상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로지부 공정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부정투표함을 지키던 양원태 (서울대경영학과·84학번) 군은 경찰의 무차별 살인탄압에 희생되어 최후3·4·5번 뼈가 완전히 절단, 재기불능의 진단을 받고 현재 고대구로병원 610호실에 누워있다. 양군의 진술에 의하면 『18일 구로구청 마당에서 진압하는 전경에 몇겨 5층강당까지 갔으나 가톡찬최루가스 때문에 앞을 내다볼수 없었고 2백여명가량의 시민들이 「살려주세요」라는 절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전경들은 계속해서 최루탄을난사 했읍니다.』라고 당시의 긴박한상황을 전한다.

『최루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어깨를 맞고 5층강당에서 구청마당으로 추락하였읍니다. 그러나 전경들은 「이자식 죽은척하네」하며 욕설과 구타를 자행했읍니다』고 양군은 말했다.

8시50분경 옥상에 남아있던 185명의 학생들에게 소방용 고가사다리차로 고압수 (최루가스 포함) 를 마구 뿌리고 직격최루탄을 난사하며 진압한 백골단은 지휘자의 「밟아죽여」라는 명령과 함께 무차별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전원을 연행해 갔다. 진압당시 옥상에서 연행되었던 황은미양 (가명·서울시립대·84학번) 은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화상정도가 심해 혼방조치되었다.

황양은 『직격탄을 맞고 머리가 피투성이인 여학생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을 남겨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울수 있었으며 세번이나 백골단을 격퇴시켰어요』라며 『옥상진압때 백골단은 직격탄 난사에 쇠파이프 (갈구리)를 휘두르기까지 해 난간쪽에서 싸우던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읍니다. 특히 옥상 귀퉁이 아슬아슬한 지붕위에서 기와장을 떼어내서 던지던 5, 6명의 학생들은 피할 시간조차 없었을 텐데…』라며 당시 상황에서 사상자 발생여부를 판단할수있는 중요한 말을 했다.

옥상 출입구쪽에서 최루가스에 질식, 실신했다가 서초경찰서로 연행되었던 김성호씨 (가명·복부지역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는 혼방조치된 이후에도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직격탄과 소방호스의 물줄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실과 진실, 정의에 기초한인간적 삶의 추구를 정면으로 유린한 정권의 반인간적 작태에 치를 떨 수 밖에 없었읍니다』며 그 당시를 회상한다. 그러나 진압상황이 벌어질때 지하실에 있었다고 하는 사방들이 현재 (1월7일) 까지 단한명도 나타나지 않고있어 지하실 안에서의 질식사라고 하는데에 대한 의혹을 짙게하고있다.

이렇듯 구로구청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중성,폭력성등으로 무장된 부정선거 은폐음모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MBC,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조작 왜곡시키기에 급급했으며심지어 중앙일보 기자방담 (12월19일자 정리 : 이규진 안희창기자) 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은 전경이 구로구청사건을 진압함에 박수를 치고…』라며이를 호도했다.

취 재 팀
오상윤 기자
류계환 기자
권명희 기자

유언비어라는 유언비어

지난 12월30일 검찰은 신문지상을 통해 『재야및 일부야당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시비와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아 그 진상을 밝힌다』는 취지의 「구로구청사건 검찰발표문」을 냈다.

그러나 다음과같은 검찰은 검찰발표야 말로 진정한 「유언비어」임을 보여준다.

첫째, 투표함 반출경위에대해 선관위사무과장 강실원씨는 『지난 10월27일 실시된 국민투표시 부재자 투표함을 투표종료후에 개표장소로 운반한 결과 개표과정이 상당히 지연되었다』며 『개표장소가 5층정도 떨어져있어 투표함운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표는 원칙적으로투표함의 3분의 2가 도착한뒤에 시작하게 되어있으므로 수많은 투표함중 부재자투표함 하나가 먼저 도착한다해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차량이 각투표소를 돌며한꺼번에 투표함을실어 옮기기때문에많은 비용이 드는것도 아니다.

둘째, 부재자 투표 및 투표함 운반과정의 적법절차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법 시행령 제55조및 제50조에 의하면 『투표마감 시간까지 접수된유효투표는 부재자 신고인명부소정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후 투표함에 투입하고…선관위는 우편투표용 투표함을 관할 시·군·구 선관위 사무소 안에 비치』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편투표함은 마땅히 마감시간 이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비치되어 있어야만 한다.

셋째, 문제의 투표함은 이후 도착된 투표용지를 투입하기 위해 절투경을 봉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투입구는 봉인이 되었다는데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넷째, 트럭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이 농성자들에게 탈취되었다고 발표했는데 명백히 문제의 투표함은 트럭에 실려있었고 빵, 과일등으로 위장되어있었다.

다섯째 3층 사무소에서 발견된 1506매의 투표용지, 인주가 선명히 묻어나는 봇투껍, 정당대리인의 도장, 인주가 묻어있는 흰장갑에 대한 납득만한 설명이 없다.

이와같은 구로구청에 대한 진상 은폐와 왜곡은 구로구청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광범위한 선거무효화투쟁이 벌어질것을 두려워한군부독재의 체제유지음모에 다름아니다.

Ⅲ. 맺음말

비록 부정선거의 증거를 폭력으로 감탈당하기는 했지만 이번 구로구청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의 부정선거 은폐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냈으며 부정선거 무효화투쟁의 봉화를 올린 사건이었다.

다섯째 3층 사무소에서 발견된 1506매의 투표용지, 인주가 선명히 묻어나는 봇투껍, 정당대리인의 도장, 인주가 묻어있는 흰장갑에 대한 납득만한 설명이 없다.

이와같은 구로구청에 대한 진상 은폐와 왜곡은 구로구청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광범위한 선거무효화투쟁이 벌어질것을 두려워한군부독재의 전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패배의 분과 허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을때 평민당과 공무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선거무효화와 군사독재 타도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게 전개되었다.

「5·18광주민중항상」을 거쳐 나타난 제5공화국의 「죽음의 정치」는 부정선거를 통해 나타난 차기정권에서도 군사독재의 연장을 위해 폭갈은 궤도를 달릴것이다. 그러나 앞으론 구로부정의 진상규명 여부는 노태우당선의 정당성및 폭력성을 폭로하고 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무효화시킬수 있는 민주화투쟁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가 지킨것은 하나의 부정투표함이 아니라 이땅의 마지막 민주주의 였읍니다.

「빨갱이」로 몰리다니…

「공정선거감시단」의 활동과 한계

일반적으로 선거는 국민자신의 투표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행위로서 모든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는 실제로 독재권력을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온것이사실이다.

필연화되었던 불법부정선거와 독재연장의 기도는 87년 12월16일, 현실로 드러나고말았다. 또다시 금권과 관권, 공권력이 난무했던 이번선거에서 관제언론은 노태우후보당선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제대로 봉인안된 투표함, 투표함 밀반출등으로 몇몇 개표소에서 큼싸움이 벌어지고있을때 새 시대의 개막은 도래했노라고 발표했던것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민주주의와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개개인의 의지는 강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6년만에, 그것도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직접선거인 13대 대통령선거가 완벽한 부정선거라고 못박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선거사상 처음으로 발족한 「공정선거감시단」 (이하 공감단) 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감단은 선거를 한달 남짓 남겨놓고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 재야·종교단체·학생들에 의해 조직되어졌다.

14만6백32투표소와 2백44개표소의 표감시를 위해 필리핀의 남프텔을 모델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선거전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각 단체별로 실시해왔었다. 그리고 선거당일 투표참관, 투표함호송, 개표참관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서 땀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선거법위반사항인 투표소 1백미터이내의 특정후보포스터 철거부터 각 투표소에서의 대리투표, 릴레이투표적발등 선거과정에서 공감단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내, 군부독재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감단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감시단은 선거이후 「선거무효화투쟁」의 대중성을 상실당한채 활동에 있어 숱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첫째로는 감시단의 조직구성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개헌협상후 선거일은 촉박했고 감시단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조직화되어야했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를 축으로 결성되어졌으나 현 집권세력의 합법적 인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민간선거감시기구」 역할을 수행해야했고 조직자체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였다.

둘째, 공감단에 고발된 부정선거사례는 수도 없었으나 부정선거사례를 취합하여 법적처리를해낼 틀로는 제대로 마련되지못한 상태였다.

이는 공감단의 가장 중요한 위상인 「초당파성」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공감단의 구성주로 학생위주로 조직되어진때도 문제의 소지가있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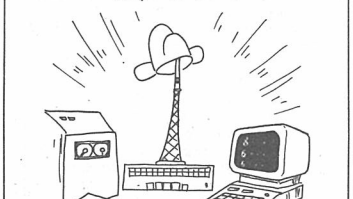
필리핀의 남프텔이 대학총장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고 시민운동세력화가 이뤄졌음에 비해 공감단의 조직이 국민대중에 깊이 뿌리내린지못했음은 인지해야할것이다.

이는 선거이후 국민대중들이 보여주는 선거결과에 대한 태도에서 엿볼수 있다. 공정선거지기도했다.

마지막으로 공감단의 초당파적위상으로 인한 문제와 조직의 와해로인해 선거이후 공감단명의로 낼수있는 성명서나 정부에대한 공개서한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선거무효화 투쟁」이 대중성을 담보치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공감단의 주축세력이었던 재야단체가 흩선에서의 신당이나 기존정치권내로 얼입한다는점도 지적된다. 한국운동의 막강한 「힘」앞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왔던 공감단의 부정선거고발이 정권측의 안정·화합이데올로기속에서 유언비어로 날조될수는 없다. 선거를 한달남짓남겨두고 조직된 공감단이 비록 여러문제점을 안고있었지만, 12·16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국민대중앞에 같이 호흡하는 「거국사회운동세력」으로 진일보해야 할것이다.

<조경윤기자>

외대만평



손발이 척척 맞았군!

동대만평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너무 다른 기분!

재미없는 강의 들을때와
재미없는 강의 끝났을때와,

시험 보기전과
시험 마쳤을 때와,

샤워하기 전과
샤워한 뒤와,

팬티라이너 안한 날과
팬티라이너 한 날과,

너무 다른 기분!

●우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여성들은 생리가 아닌때라도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우리덤 팬티라이너는 이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입니다.
팬티안쪽에 살짝 붙여두고,하루에 서너번만 갈아주면
항상 상쾌하고 깨끗하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코텍스 우리덤* 팬티라이너

*표는 미국 킴벌리·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REGD. TRADEMARK KIMBERLY-CLARK CORP., U.S.A.

PRINTED IN KOREA, 1987 OCT

◇12·16선거관련…「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특별 기자방담

안정·안보이데올로기 조장,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

—오늘 우리는 민주를 사랑하는 백만애국학도와 6천만국민의 이름을 빌어 비탄에 빠진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운명에 대해 깊은 위기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직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고집하고 다짐해온 대학신문기자들로서 현하 우리 앞에서 버젓이 펼쳐지는 진실과과의 현장을 목격하며 그것이 아님을 널리 밝혀야 한다는 절대적 임무를 뼈아프게 각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12·16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전개된 선거국면의 양상을 현장취재한 전국 대학신문기자들의 발담을 통해 그 전개과정과 부정·비리·폭력의 실상, 그리고 향후 정국의 전망과 실천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비록 취재 범위나 그 정확한 진위 여부에 난점이 있다해도 각지에서에서 취재하고접한 선거의 문제점을 토대로 군부 재집권 과정의 숨겨진 죄악상을 밝혀 「진실의 공감」과 이를 통한 긴급한 실천지침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의미를 갖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선 6.29이후 사회운동기구의 제논의의 흐름과 집권세력의 선거전략에 관해 짚어나가도록 합시다.

—예. 군부독재통치 27년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는 전국민의 민주화 열기가 「직선제」의 틀로 종착된 지난 6월당시, 우리는 희망과 우려의 교차점에서 갈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난관이 따름지라도 전국민이 애국민주의 힘으로군부권력을 심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요, 막강한 금력, 물리력, 제도적 우위성을 점한 기존권력이란점에 따라 국민의 사와는 무관한 반동세력에게 패배할 수 밖에 없으리란 불안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타 사회운동세력의 고민 외중핵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로 빠져 들어가 즉자적 대응만 이분산적으로진행되었습니다.

—2학기 개강이후 본불기 시작한 학원민주투쟁이 당초 의미설정과는 달리 파행적으로 장기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학원의 민주권리회복투쟁을 통해 대중진화력을 강력히 한다는 점이 중시되었던 것이긴 하나 오히려 정치투쟁의 장식을 초래 7.8월 노동투쟁의 연계와 선거투쟁의 장기적이며 조직적 기반형성의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야권후보의 단일화 촉구실패와 특정후보의 압도적 지지공세의 경우 민중정당, 민중후보와 함께 반군부독재연합전선의 축과 연결되지 못한채 실질적 근거와 내용의 선전을 통한 호소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져요.

—한편 민중후보 추대의 경우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간창출과 2월총선의 민중정당결성이란데 큰 비중이 두어졌다고 봅니다. 허나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 이를 견제하고 촉구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으나, 결국 추대위와 선대위간의 내부갈등및 기반약화, 단일화실패등으로 중립적 입장만을 견지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 같아요.

—이제 이에 반한 집권세력의 정보공작, 선거전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개괄적으로 짚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미 사전에 입수된 집권세력의 선거전략에 따르면 협정적, 공권력등 여타 유리한 제도적의 공세를 통해 야권분열을 책동하고, 지역감정을 촉발함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세력의 일체의 활동을 차단한다는 것으로 압축해볼수 있읍니다. 따지고 보면 김종필씨의 출마를 제외하곤 열에 아홉은 맞아 떨어진 셈이지요. 정가의 보도처럼 폭하면 들고 나온 안정이데올로기의 포석이어보겠읍니다. 학생은 학생이 알아본다고 (일동 웃음) 말 그대로 협상궂은 괴청년들이었어요. 이들은 유세시작전부터 일사불란(?)하게 과격한 역선, 즉 방화·투석을 하였읍니다. 헌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주위에 배치된 경찰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오히려 자제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역감정해소를 목적으로 지난번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영·호남 대동제도 그래요. 그날 저녁뉴스보고 저는 제가 딴데서 취재한줄 알았읍니다. 전혀없던 일을 꾀은 아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날 분위기의 주류는 시종일관 진지했고, 서로의 대

승용차가 이동중에서 투표함을 교부하는 등 집권의 일체의 불법행위 의 제보를 폭로한다

선거 무효화 투쟁에 민주역량 총집결해야

립조장 양상을 극복키 위한 많은 사람들의 열의에찬 토론이 진행되었읍니다.

—또한 극우보수반공단체의 참괴과 대학가의 친북 대자보사건, KAL기 공중폭발사건등 수십년간 국민들의 건강한 통일의지를 퇴색시켜온 반공, 안보이데올로기의 예의 파상공략은 이번 선거국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민정당에서 큰 덕을 본 안정공식인 「야당=혼란, 여당=안정」의 논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셈이죠.

—이제 선거막바지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각 대학별로 결성된 「공정선거 감시단 (이하 공감단)」 활동을 간략히 평가하고 전국 각처에서 발생한 대표적 부정선거 사례를 매기해 보도록 합시다.

—선거를 불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공감단 활동은 시작되었읍니다. 공감단은 필리핀 「남프렐」을 모델로 부정선거의 최대 대항조직이자 세력화의 동력으로 기대되었지만, 시간적 촉박함과 전폭적 참여의 미흡으로 인한 조직기반의 열악성을 노출시켜 오히려 「들러리」 밖에 안했다는 혹평이 튀어르기도 했읍니다.

—예. 남프렐과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그 지도중심체, 전국적 조직기반, 초당파적위상 등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장기적 준비가 허술한 채 선거종반에 학생중심으로 급조된데 따른 것이란 점이 반성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가 부정이었다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선거전에는 물론 선거당일날 이중투표, 대리투표, 선관위원매수,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탄압, 부재자 투표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동원등의 공포분위기 조성및 투법천지의 폭력행사 그리고 개표조작등 어쩌보면 「노후보 고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민정당모임에 참가안할시엔 행정적 불이익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까지도 하였읍니다.제보자 신문을 통해 이는 직접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춘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춘천사천개표소에선 김영삼씨 1백표 묶음에 노태우씨 표가 한장 얹혀있는 이른바「샌드위치표」가 적발되었어요. 허나 특히 두드러진것은 강원도의 부재자투표 문제였어요.

부재자투표는 가히 부정의 천국이라 할만 합니다. 11월 「개정헌법안국민투표」 당시부재자인구가 60만명이었던 것이 한달새에 80만명으로 20만명이란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 근거를 따져보면 군입대날짜를 앞당기기도 했으며, 민정당모임에 참가안할시엔 행정적 불이익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까지도 하였읍니다.제보자 신문을 통해 이는 직접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춘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춘천사천개표소에선 김영삼씨 1백표 묶음에 노태우씨 표가 한장 얹혀있는 이른바「샌드위치표」가 적발되었어요. 허나 특히 두드러진것은 강원도의 부재자투표 문제였어요.

부재자투표는 가히 부정의 천국이라 할만 합니다. 11월 「개정헌법안국민투표」 당시부재자인구가 60만명이었던 것이 한달새에 80만명으로 20만명이란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 근거를 따져보면 군입대날짜를 앞당기기도 했으나, 동참의 수준으로 고양될 만큼은 아니었어요. 아침분열에 대한 분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정선거실상은 커다란호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우씨의 집권확정후 부정선거규탄「선거무효투쟁은 광주에선 조금 집중된 등참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죠. 17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결의대회와 가두시위가 있었고, 산발적으로나마 목포, 나주, 무안등 전남일대와 이리, 전주등지에선 「전남지역 대학생 협의회 (이하남대협)」주도하에공

> "지난 6월항쟁 당시와는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입니다. 부정선거 사례와 투쟁속보 홍보에는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역력하나, 2백만표라는 표차에 노후보 당선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것 같아요. 언론의 반 역사적 행각으로인한 상황의 열악성도 그 한이유 이고요.

—예, 당시 구청측에선 참관인에게 물량과 과일류이라고 했으나, 직접 봉고트럭을 확인한바에 따르면 그것은 같이 놓여있었다기 보단 멀쩡히 있어 숨겨가려는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죠.

—예 그러던중 부정투표사실의 폭로에 위협을 느낀 정권은 뇌리속에서 영원히 지울수 없는 10·30건대집압과 같은 무참한 진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12월18일 그날 구로구청은 불길에 휩싸였고 투신자와 피의 절규가 곳곳을 때렸읍니다. 농성자들은 백골단에게 반인간적 폭행을 당하며 개팔리듯 끌려갔고 바로 그때 「위대한 보통사람」의 승리의 환호사진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나붙었읍니다. 투신자의 확실한 생존여부는 물론 그 삼저난 육신까지 남치되어 행방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서울신문의 17일자 호외신문은 컴퓨터를 이용한 개표조작의 가능성을 더더욱 확신케 해주고 있어요. 이 신문은 잠실일원에서 배포되던중 원인불명으로 중단조치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7일 상오8시 현재 노후보의 득표수가 8백20만표로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허나 그보다 1시간 지난후에도 노후보는 6백99만표 가량을 득표한 정도일 뿐이었어요. 더우기 외혹스러운 점은 호외에서 발표한 수치가 그로부터 10시간이 넘은 시간후의 수치와 거의 96%정도의 확률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관련 서울신문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컴퓨터로 예상집계」 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긴했으나, 당일 호외에는 예상집계한 「기사내용의 근거」를 일언반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취재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더우기 배포가 중단된것은 어떻게 해명할것입니까.

—이상에서 우리는 부정선거의 굵직한 사례들을 검토 정리해보았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다는 설명할수 없읍니다. 전술한 사례들만으로도 부정선거의 정도가 어떠했는가를 추측하기엔 그리어렵지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노태우후보의 대통령당선은 결단코 인정할수 없으며,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나왔습니다.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순탄치 못하고, 오히려 부산위기의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선거이후 동향을 각지역별로 알아보면서 그 원인과 향후대처방안을 검토하는 일이 실로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없읍니다.

—서울지역의 각대학은 18일 출정식을 열었고, 시청에서 선거무효화투쟁을 개최하려다가 원천봉쇄당하자 명동·종로등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투석전을 벌이기도 했읍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의반응은 지난 6월항쟁 당시와는 정면대치되는 것으로 극단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앞고있읍니다. 부정선거사례와 투쟁속보 홍보에는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역력하나, 2백만표라는 표차에 노후보 당선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것 같아요. 언론의 반 역사적 행각으로인한 상황의 열악성도 그 한이유 이고요.

—그렇습니다. 반노후정의기치아래 민주역량을 총집중해야합니다. 부정선거무효화와학살원흉 노태우 집권반대를 선명히 내걸고 광범위하게 부정선거의 실상을 계속 선전해나가는 공격적인 홍보전의 형태를 기본축으로 부정선거규탄대회를 대규모로 확산키위한 필사적 노력에 역량을 모아야할것입니다.

—부정선거규탄을 통한 정통성의 부재를주요 대상으로 삼아 노태우의 과거의 대죄악을 폭로해 나가야 하며 내각사퇴요구와 관제조작언론 규탄투쟁 역시 강파되어선 안될 문제입니다.

—우리 운동의 역사가 결코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단한 피의 희생과 무수한 민주혼의 헌신으로 지켜온 것이라 할때 이 시점에서 서로를 망연자실 자책하는 소시민적 유약성과 이기주의를 경계해야할을 재삼 강조해두지 않을수 없읍니다.

—끝으로 대학신문의 예상되는 외압에 대한 대처방향을 논의해 보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예, 대학신문 역시 외적상황에 민감할수 밖에 없다는 점에 따라 신중한 대응책을 수립해 놓아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중되는 탄압을 돌파하고 우리의 할바를 다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직적 단결력이 요구된다하겠읍니다. 연대전선의 구축이 강력한 내구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하며 소속 기자들의 철저한 고민과 진실사수의 자세는 모든것이 토대적 힘이라고굳이 확인해두고싶어요.

—예, 우리 대학신문과 그 연합조직인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는 진실이 매장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오직 정론의 투혼으로 진실의 기강을 곧게 세워 위대한 민족해방의 길을 세우기위해 할수있는 모든일을 다해나갈것을 다짐해야 할것입니다. 종속적 상황논리를 거부하고 내적역량을 충실히 쌓아가는데 열성어린 의지를 가다듬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기록정리 : 전대기련선전국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한 야권 질책과 패배 의식속에서 시급히 탈피하여 사회운동세력을 정비, 노집권의 비정통성을 폭로해내야

고 보여져요. 전·노 퇴진, 현 김정렬내각 총사퇴, 거국중립내각구성, 김대중후보의 비판적 지지, 후보단일화, 민중정당·민중후보 추대위원회등 각계파간의 다기한 이슈가 시기에 따라 결합되기도 하고, 달리 등선을 그려간 것만 봐도 그 고민의 정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니까. 관념적 수준의 논의는 분분했지만, 국민대중의 실체적 정서와 상태에 치밀하게 부합돼 대령제 달성을 위한 과학적 힘로를 밟아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거당일에 일박해 잘수록 들파구의 구심점을 잃고, 흔미한 미국의 주요하게 들어맞았고, 반제민족구를 이용한 야권분열책동과 이에 따른 국민적 실망감유도에 그들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6·29선언 「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김대중씨의 사면복권을 통해 후보단일화 저지전략을 적중시킨것도 그러합니다. 덧붙여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확대조장함으로써 혼란과 회의감을 조성하기도 했읍니다.

—그래요. 실례로 호남지역에서 있었던 민주당 유세현장을 취재하다가 목격한 것을 들

참 석 자

권 영 일	(서강학보사 취재부장)
김 명 섭	(단대신문사 기획부장)
나 권 일	(전남대신문사취재부장)
송 훈	(외대학보사 기획부장)
안 명 숙	(강원대학보사기획부장)
이 상 태	(영남대 신문사 기자)
전 영 구	(충남대신문사특집부장)
최 정 용	(충북대신문사취재부장)
사 회	: 차재훈(전대기련의장·외대학보편집장)
일 시	: 87년 12월23일 수요일
장 소	: 충남대 신문사

◇87년 주요 기획기사 정리

제기된 문제속에 산적한 과제

○…지난 87년, 학내외로 밀어닥친 민주화의 열기는 가히…○
○…신새벽을 알리는 진군의 나팔소리 였다. 6월 민주화…○
○…투쟁, 8월 노동투쟁, 그리고 비록 실망과 좌절의 비…○
○…운을 안겨 주었지만 줏웃하게 떨쳐 일어나야 할 우리…○
○…의 의지를 되새겨 주었던 대통령 선거등은 대 사회적…○
○…인 격변의 물결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학내에서…○
○…도 학원 민주화 투쟁의 열기는 전국적인 하나의 조류…○
○…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매우 미약한 수…○
○…준에 머물렀고 가시적인 변화만 보였을 뿐이다. 이에…○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본보 기획면에 게재되었던 학…○
○…내의 소소한 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폭은 87년 한학기를 망라하…○
○…되 주요기사를 중심으로 한다. <편집자>…○

학사행정

—입학장학금문제 : 우수 신입생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입학 장학금은 타학교에 비하여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기존의 장학금제도는 각과 석차 1백분의10이내의 학생에게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우수입학장학금과 전국등위 2천등이내의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4년간 등록금 면제, 그리고매달 학자보조장학금 20만원을지급하는 특별우대 장학금이있었다. 그러나 신학기부터는 특별우대장학금이 폐지되며 캠퍼스별, 각 단대별, 과별수석 입학생에 대한장학금이 증대되어지급된다.

이에 대해 학생처 장학과의 이정규씨는 『외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4년동안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장학제도가 면학분위기 조성과연구하는 학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미한 수준의 장학금 수혜폭을 더욱 확장시켜야한다.

한편, 지난 학민기간에 학교측에서 약속한 장학금의 1억원 증여는 「재단장학금」으로서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급내용을 결정,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를입정원제 폐지 : 81학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던 졸업정원제 (이하 졸정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88학년도 입학생 부터 입학정원제로 바뀐다. 그러나 8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졸정제가 적용, 90학년도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의 30%를 탈락시켜야 하는 졸정제는 탈락기준이 상대평가로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도 탈락되어야 하는 병폐를 안고 있었다.

—용인캠퍼스 행정체제 격상 : 80년 당시 단과대 성격의 「용인대학」으로 출범했던 용인캠퍼스는 4개 단과대 29개학과 4천5백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가 서울캠퍼스에 종속되어 있다. 때문에 교학처장이 최고행정 책임자로 있는 용인캠퍼스는 독자적인 행정책임의 결정권 미약이라는 문제점과 각 행정부처의업무가 단순업무로만 일관되고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절차상·행정상 곤란한점을 내세워 반대하던 학교측은 업무의 자율화와 능률을 위해 부총장제를 도입, 서울캠퍼스와의 분리 행정체제를 계획하고있다.

그러나 학생측 입부에서는 행정분리시 나타나는 분교제제 등으로 개선방안이 없을수 밖에 없다고 밝힌다. 때문에 교수들 측에서는 용인캠퍼스내에 교수회관을 신설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 모색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자세로 일관

학생·교수·교직원이 학원의 주인임을 인식, 주체적인 참여 절실

시설의 보완과 확충

—전산실 시설확충 : 용인캠퍼스의 전산시설은 84년 당시 터미널을 분리대에 19대, 사회대에 3대를 분산설치했던것을 지금까지 고수함으로 해서 증가하는 학생수에 비해 결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용인 캠퍼스 경영정보학과에 2대, 문리대에 8대의 터미널을 설치, 총32대의 터미널로 증가되었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문리대의 전산실 사용시간을 연장한다. 그러나 일반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고조등에따른 시설보완및 증가는 계속적으로 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캠퍼스의 최신형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의 시설도 커다란 불편함은 없을것 같으나 계속적인 학생들의 개선요구가 있을시 성실히 임하겠다』 고 말한다.

—용인캠퍼스 휴게실 확대 및 보완 : 지방캠퍼스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캠퍼스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용인캠퍼스는 학내 휴식시설이야말로 학생들의 건전한 대학문화 형성의 초석이라 하겠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휴게실의 제기능 문제와 여학생 휴게실의 집기확충, 그리고 외부 휴게실의 차양시설등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며, 각 단대별로 하나씩 있는 휴게실의 경우도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버스정류장 휴게실은 45평의 단독규모 확장 공사를 현재 진행, 1월말 완공될 예정이며, 정류장의 바람막이도 함께 설치된다. 여학생 휴게실에도 보완시설이 진행중에 있으나 외부 휴게실의 차양시설은 거론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시반의 열악한 환경 : 고시반은 열람실 좌석수 부족, 소음, 재정적 지원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으로 인해 해마다 CPA,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에서의 합격률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사법고시 연구원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왔다. 사법고시연구원의 문창근 실장은 『근본적으로 연구실을 학외로 옮기는것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타학교와는 비교도 안되는 본교 고시원의 시설에 따른 문제해결방안을 피력한다.

이에대해 사법고시반 이준성 지도교수는 『현재 4개고시반의 지단교수들과 함께 고시반 개선에 관한 자료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학교측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곧 학외로 이전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한편 용인캠퍼스의 경우 기술고시반을 설치, 기존의 고시반에 이를을 편입시킬 계획이다.

—화재기구 관리의 문제 : 지난 8월 학생회관 4층의 3백20여평, 37개 씨름클럽을 전소시켰던 화재는 학교측의 화재기구 관리의 무성의와 학생들의 화재에 대한 인식 소홀에 기인한 재앙이었다.

화재당시 지적되었던 학생회관의 문제로는 씨름클럽의 배니어판 칸막이가 인화성이 컸고 화재기구 검사에 합격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당시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물의 대부분이 노화된현재 각건물의 화재방지 시설에 대해서 보다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3월에 개강하기 전단계 새 씨름에 입주할 학생들은 화재에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것이다.

—구내전화·개선안 : 구내전화 통화시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서울캠퍼스의 야간 연장근무는 야간강좌·야간대학원의 편리와 신속한 교환업무수행을 위해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용인 캠퍼스의 경우 수동식 (공전식) 전화기를 자동화 하는 것에 대해선 교가의 시설비와 지역성을 문제로 현재의 시설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서울·용인캠퍼스간의 교환회선증가, 용인캠퍼스의 장거리 전화 설치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상태이다. <기획부>

입시결과 분석에 따른 대책시급

본교, 제2외국어 필수화와 전·후기분할모집 검토중

88학년도 대학입시가 선지원 후시험제로 바뀌어 실시됨에 따라 본교여시 지난해 12월22일 본교 강의실을 포함, 인접지 여중·고등학교를 시험장으로 활용하여 학력고사를 실시하였다. 소신지원에 따른 5.27대1의 평균경정률을 보인 본교의 경우, 용인캠퍼스의 경정률이 비교적 높아진반면, 야간강좌의 커트라인이 낮아지는등 다소의 변화를 보였다.

이번 입시제도의 변경에 대해 대학당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고등학교 입시관계자와 수험생의 경우 결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C고교의 진학담당교사인 정모씨는 학생들의 성적측정기준이 애매한 상태라 진학지도가 예년보다 더 어려웠다며 『89학년도여시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대책을 세울 수없는 형편』 이라고 말한다.

또한, 본교 무역학과를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한모군은 『이번에는 고득점 탈락자가 많이 생겨 재수는 어려울 것 같다』 며 후기대에 하향지원이라도해야겠다고 말해 이번 입시제도의 후유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선지원 후시험에따른 소신지원이 입학성적뿐 아니라 이후 전공과정의 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특수어학과가 타학교에 비해 비교적 많기때문에 나타나는 입학이후의 학습의욕저하현상이 선지원제도에 의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철 교무처장은 『내년 89학년도에는 각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것』 이라며 그러할경우 본교는 제2외국어등이 필수화 필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한다.

이렇게 볼때 금년에 본교를 지원한 1만6천2백74명의 학생중 2천3백36명만이 제2외국어를 선택(14.5%)해 입시제도가 다시변경될 경우 지원경향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측은 내년부터의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조교무처장은 『학교의 질적향상을 위한 고득점자의 수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금년 4월정도까지는 검토를 마무리하여 문교부에 정식신청할 계획에있다』 고 밝힌다.

현재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등의 많은 대학들이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해 긍정적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입각에서는 전기와 후기지원학생들간의 성적격차, 후기지원학생의 소속감 결여등의 이유를 들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점진적으로 실적이 하락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분할모집 이외에 입학학금보완, 학교측의 적극적인 우수학생 유치활동등이 필요하며 내년의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적절한 자체제도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헌기자>

교수동정

▲영어과=심규세교수 : 87국비해외파견교수로 미국버클리대방문, 88년1월12일~89년1월12일. 신명섭교수 : 미국하와이주립대 조·스탁연구초청으로 American studies경 Ethnic studies분야자료및 연구사례조사차 미국방문, 88년3월1일~89년2월28일. 최종수교수 : 『현대 영·미비평의 이해』 출간 한신문화사. 이영걸교수 : 86문교부 대학교수회의 연수계획에따라 1년간 UCLA 영문과에서 현대영미시 연구차 1년간 휴직했다가 복직함. 87년12월24일귀국.

▲영어교육과=이용호교수 : 연구차 미국방문. 87년12월30일~88년2월25일

▲독어교육과=함종인교수 : 서독학술교환처(DAAD)초청으로 본대학 음성학및 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 연구차 서독방문. 88년1월10일~88년2월25일

▲독어과=이인용교수 : 프란츠카프카지 『나의사랑 나의슬픔 밀레나여』 번역·우아당출판사.

▲서반아어과=길이배교수 : 대만탈강대학에서 제1회 「중남미관계 국제심포지움」 참석 88년1월15일~88년2월15일

▲태국어과=이교홍교수 : 87국비해외파견교수로 태국클라통껀대학방문. 87년12월30일~88년12월30일

▲인도어과=김우조교수 : 박사논문심사및 힌디·한사전편찬위한 자료수집차, 인도방문 87년12월26일~88년2월7일

▲한국교육과=김종균교수 : 미국ICF초청 학술회의 참석차 미국방문. 88년1월10일~88년1월20일

▲신문방송학과=정진석교수 : ①런던대학의 박사학위수여식참가 ②영국의 공공기록보관소와 신문도서관, 런던대학도서관에서 한말외교사관계자료수집차 영국방문. 88년1월2일~88년2월22일.

▲사학과=이은순교수 : 하와이대학에서 한국학관계문헌조사, 한국학연구소에서 과제조사연구, 제2회 「중국성의 한국문헌연구 국제학술회의」 에 참석차 미국·자유중국방문. 87년12월16일~88년1월31일.

이사람

이 영 진

〈수석 입학자〉

『제가 수석했다는 것이 좀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가네요』 언어학을 좋아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을것 같아 선생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영어과에 지망했다는 이영진 (수원 영복여고졸업예정) 양은 아직도 자신이 수석입학생이라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

고등학교때 선배들을 통하여 대학은 낭만과 멋과 사랑만이 가득한 상아탑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버리진 했지만 외대에 처음와 보고는 그 초라한 몰골 (?) 에 그만 울렌했다고.

자신의 성격을 내성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자율이라는 면이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능동적인 생활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사실 자신이 하고픈 공부, 자율적인 생활을 무시한 채 철저히 기계적인 생활만을 강요했던 제도교육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 라는 이양의 말은 결코 이양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이다.

지난 해와 같이 대 사회적인 여러 문제로 격변의 기운이 감돌았던 시기가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친 것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양은 『고전에는 제도교육에 철저히 봉쇄되어 다른 그 어떤 생각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왔었기 때문에 부관심하게 지내 왔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사회의 흐름에 저절로 빨려들어가 새로운 것에 흠미를 느낄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혼란으로 오히려 학업의 부담이 줄어들었던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지금은 문학서적을 탐독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이양은 앞으로의 대학생활은 결코혼자서만 살아갈수없는 장(場)이기때문에 일단 열심히 부딪쳐보겠노라고 말하면서,그속에서 선.후배나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새로운것을 알게되면서 겪는 고민이나 갈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한다』 고.

비록 짧은 모르지만 대학생활을 밝혀서 보았을 때 상당히 이기적으로 생각되었다는 이양은 앞으로 외대에서의 생활은『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탈피,정을 쏟고 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학생이 되었으며 좋겠어요』 라며 힘주어 이야기한다. <환>

"정을 쏟고 정을 받을수 있는 학교·학생이 되었으면 해요.

투쟁해야 할 운수

○…집을 부숴놓고 팔팔, 리어커를 뺏어가도 팔팔, 쌍팔년만 되면 전국민이 팔팔 수 있다는 감언 (甘言) 으로 치장하던 바로 그 무진년(戊辰年) 새해가 도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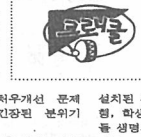
서른 네살 애국외대의 무진년 토정비결은 1·2월은 잠잠하나, 3월부터는 순탄치않을 가시밭길닫고 전진할 운수라는데.

부디 무진년 새해는 이 땅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싸워야할 흡산제위들에게 용(龍) 같한 기상이 충만하기를 크로니클자 간절히 바라오.

○…「두드려라,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한 무더기의 코른 거지들이 한반도의 문전을 소란케 하고 있다는데.

사연인즉 한동안 사회불안이니, 선거니 하며 미뤄오던 제국 (帝國) 주여통상압력이 「양담배 시판가 인하」 「쇠고기 수입」 「국내 보험시장 개방」 등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한것.

한반도의 시장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몇개 안 남은 문까지 열라고 콘소리치는 「영원한 우방(?)」 의 손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때.



○…지난10월 결성되었던 직원노조에 모든 흡산을 힘찬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 문제로 이문벌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아.

기본 생존권을 위해 타학교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하라는 노조측의 주장에 학교측 「묵비권」 으로 맞서 곤경의가 시작될 듯.

「노조」 하면 눈살 찌푸리고 「경의」 하면 치를 떠는 「상 (上) 것들」 의 처세술을 학교측에서도 배우셨다해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우리의 손으로 밖에 찾을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비계」 공사만 해놓고 차일 피일 미뤄오던 학생회관 4층건물이 그 흉한 를골을 「성형수술」 하느라 방학 초부터 매우 분주하긴한데.

공사안내표 시판이나 안전시설 하나 없이 공사를 강행, 학생회관 사용하는 흡산들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라고.

흡산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방학중에 공사를 마무리,새 학기에는 번듯한 건물로 만들어 놓겠다는 학교측의 마사르운 (?) 마음이 고맙긴 하나 기왕이면 사람 콕 솝어 달린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도쿄에 제비콧 못 버리듯, 「수조로운 개조작업」 과 말잘들는 클퓨터가 협력한 사상최대의 공정선거(?)로 당선된 노모씨가 옛 버릇못 버리고 본색을 드러내.

추학사, 질시사등은 유일비어이고 구출된 사람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극렬분자라고 반성문을 요구한다는데 진짜 반성할 사람은 누구인지.

관권, 금권 그리고 부정으로 이룩한 안정의 시대가, 최루탄으로 얼룩질 화합의장 (場) 이 파연 얼마나 갈지도 외문이지만, 이 힘없고 불쌍한 보통민초 (民草) 들 보통생선 노가리를 씹으며 그날을 기약해야 한다는 과제를 명심해야 할 사 (事).

노가리를 씹으며

코오롱은 보다 나은 기업의 미래를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댓가의 보람으로 실천하는 사풍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 가을에 성취의 보람은 참여의 강(場)에서 최선을 다한 뒤 느끼는 긍지와 자신감을 말합니다.
한 젊은 인재가 펼치는 용기와 도전 — 바로 코오롱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취의 보람으로 맺어지는 일터 —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또는 작은 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느끼는 성취감이 있는 일터 — 젊은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터라 확신합니다.
코오롱은 바로,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인 도전의식을 가진 인재가 그들의 재능과 개성을 성취의 보람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재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젊음의 도전과 창의성이 성취의 보람과 더불어 참여의 보람, 댓가의 보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사 전 용 상 전용상

성취의 보람은 젊은 의욕과 창의성이 알찬 결실로 맺어졌을 때 느끼는 최대의 보람이며 긍지입니다. 코오롱은 그 누구의 개성이 성취의 보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와 기회가 펼쳐져 있는 보람의 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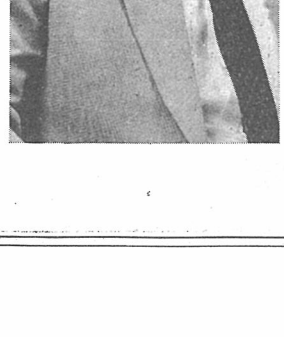
성취의 보람 —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 코오롱

자난해 6월은 28년—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생애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읍니다. 바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준 결실이 내손으로 이루어진 달이기 때문입니다. 막상그 일이 처음 주어졌을 땐 막중한 임무 앞에 부담감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사한지 2년만의 큰 프로젝트 —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경탄 놀랄 수 없는 경효의 기회였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선발업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신제품 개발'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었읍니다.
마침내 신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던 날!
그 보람, 긍지, 그리고 부듯한 성취감은 지금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읍니다. 젊은 인재의 의욕과 창의성을 성취의 보람으로 맺을 수 있도록 폭 넓은 기회가 펼쳐져 있는 일터 — 바로 코오롱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음의 패기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보람의 일터인 것입니다.
주식회 박 만 우 박만우

❷ 코오롱은 보다나은 미래를 가꾸기 위한 기업의 의지는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댓가의 보람을 실천하는 사풍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謹賀新年



본보선정 '87 외대 10대뉴스

6월투쟁의 선봉 애국외대

「6.10국민대회 외대출정식」을 시발로 6월9일부터 27일까지 본교생연인원 3만3천여명이 참가한 6.10항쟁은 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민주화 대투쟁이었다。「애국외대」의 드높은 기치는 남영역광거시위및 서울역·충무로·성남등지에서 연일 끊임없이 솟구쳐 직선제쟁취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6월민주화대투쟁기간중 본교는 구속학생 17명, 부상학생 27명 외에 이재용, 이시경 두 학우를 잃기도했다。

본교 직원노동조합 발족

지난 10월21일 근로조건의 개선과 생존권획득을 위한 「직원노동조합」이 본교직원의 뜨거운 의지속에 발족했다。

가열차게 진행했던 7·8월 노동자 투쟁에 힘입어 결성된 노조는 타대학에비해 훨씬낮은 평균임금인상과 근로환경개선요구를 위해 14일, 23일, 28일의 3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했었으나 이에 대해 학교측은 바쁜 행정업무를 이유로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다。

학교측의 계속적인 단체교섭결렬에 1월4일 신고한 노동쟁의는 노조측의 제권리획득을 위한 부단한 몸짓으로의 역할수행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임에 확신한다。

부정에 맞선 공정선거감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현 정권의 음모를 분쇄, 28년간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분쇄를 위한 총파업 투쟁」과 「공정선거 감시단단」의 활동이 본교에서도 활발히진행되었다。

공정선거 감시단단에 본교에서는 총5백69명이 가입하여 참관인 활동, 투표소주위 감시, 투표함 우송, 개표 감시활동등을 벌였으나 사전 준비작업의 미비와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한 현 정권의 부정으로 인하여 결국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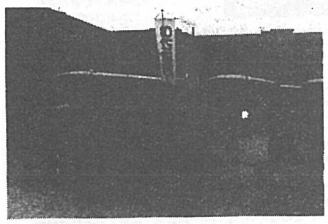
온갖, 조작된 이번 선거의 갖은 부정은 88년 신학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점 못찾은 신방과 장기농성

지난 11월18일(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대자보 게재로부터 시작된 김진홍교수 퇴진 농성은 학생과 교수간의 감정적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수직 악용, 학과장직 남용, 강의불성실」등의 이유로 시작된 농성은 양측이 서로 양보할수 없는 입장을 고수, 별다른결과없이 일단락 되었다。

2차례의 단식농성과 자퇴서제출등으로 농성을 계속해온 신방과 학생들은 교수측의 소위 「영등모의」등에 대해 인정할수 없음을 밝히고 등록금 거부투쟁등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명확한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울듯 싶다。



강요된 선택 전방입소교육

「미제용병교육」「획일화된 안보논리강요」등을 이유로 전방입소거부투쟁이 치열히 전개되었던 86년도와는 달리 전방입소교육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질적으로 전방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군복무기간 45일의 단축혜택이 무효가돼 「강요된선택」이라는 허구성을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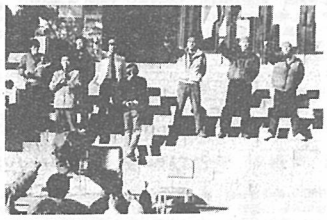
결국 전방입소교육의 선택과목화는 86년 거세게 일어났던 전방입소거부투쟁에대한 정부의 고차원적 대응책으로 학생운동세력을 고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원민주화 투쟁과 총장퇴진

87년 2학기는 학원민주화투쟁으로 점철된 한 학기였다。

외대내에 뿌리깊게 착근한「온갖 부조리를 척결하기위한 학생들의 학원민주화투쟁은 양캠퍼스의 「학민추」「학민투」의 주도하에 50여일이상 진행되었다。투쟁기간중 「재단퇴진」과 「재단이사진 퇴진」의 목표설정에 혼선을 빚어 많은 학생들에게 의문점을 제기했던 이번 학원민주화투쟁은 결국 황병태총장 퇴진과 파송이사제도입으로 일단락 되었다。

특히 용인캠퍼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은 투쟁에 반해 성과를이 극히 적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교수협의회산하 3개특위 결성을 통한 활동여부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치열히 전개된 단대학생회장선거

지난해 11월, 서울캠퍼스 7개 단대의 학생회장선거가 열띤 분위기속에서 치뤄졌다。

86년에는 5개단과대의 단일입후보로 인한 찬반투표로 분위기가 침체됐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상경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에서 경선이 벌어져 선거다운 (?)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이와같은 현상은 87년에 들어 나타났던, 정파간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모습중의 하나로 볼수 있으며, 「집권여당」과 「야당간의 싸움」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탄압국면이 예상되는 88년도에는 이러한 선거의 열기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치발현되야할 것이다。

새로운 외대를 위한 「교수협의회」

본교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10월12일 1백74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교수협의회」는 김계수 (정외과) 교수를회장으로 선출, 「학원민주화및 자율화 추진위원회」등 4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원민주화 사업등의 여러방면에서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있다。

또한, 회칙상의 자문·심의기관성격에서 탈피하여 강력한 협의체로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학원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이 예상된다。

전의대인의 학원발전에 대한 열의와 그에따른 실천이 이를 뒷받침해 줄수 있을것이다。

유명무실했던 21대 총학생회

지난 87년 한해동안 총학생회는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총학생회 임원진간의 불신과 월범사건으로인한 손근우 총학생회장의 실질적인 권한 상실으로 87년 하반기는 단대장들과 확대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운동논리에 대한 분파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했던 21대 총학생회는 학생대중이라는 기반을 상실한채 고립분산적인 사업으로 일관 되었다。

금년 3월 출범될 22대 총학생회는 21대 총학생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외대의 지도부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관 화재로 4층전소

지난 8월28일 (금) 학생회관에서 화재가 발생, 총건평 1천7백여평중 4층 3백20여평이 전소했다。

이번 학생회관화재는 그동안 학교측의 방화관리가 무성의했던점과 학생들의 화재에대한 인식이 소홀한데서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로인해 서클인들은 학생회관 1. 2. 3층에 「폭방 (?)」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써클인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학생회관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함께 이번과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위한 방화시설의 완비가 요요구된다。

謹賀新年

"二等精神을 생각합니다"

항상 남보다 앞서가려하는
一等主義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며
힘을 모아 이루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 입장에 앞서 상대방의 입장을
내 주장에 앞서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二等精神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만을 앞세우는 一等보다
모두를 생각하는 二等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一等社会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二等精神 ———
그것은 雙龍의 변치않는
기업정신입니다.

SSANG YONG 쌍용